

CITY OF ANGEL

SPECIAL THEME

엔젤의 성지,
DGB대구은행파크를 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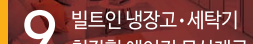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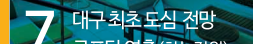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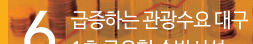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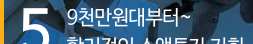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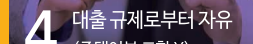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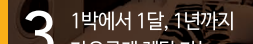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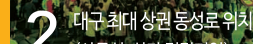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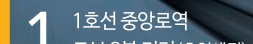


— New Diamond Angel —

家五

웃다家

살다家



분양/렌탈문의
053)423-7900

단독주택형 타운하우스는 동서개발 뿐입니다!

사동 동서프라임17
견본주택OPEN
사전에약제 실시

*본 홍보물 이미지, CG 및 그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조감도 이미지 컷



사동 동서프라임17
prime

경상북도 경산시 평산동 765



문의 053) 766-5885

풍요로운 삶을 위한-



축구, 대구를 부탁해!

지난 3월 교보생명 본사 글판에는 시 한 구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 살아봐야지 / 너도 나도 공이 되어 / 쓰러지는 법이 없는 둥근 공처럼’

정현종 시인의 시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에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역시, 인간의 본질과 삶을 탐구하는 시를 쓰는 시인다웠습니다. ‘공’ 하나에서도 어찌 저리 가슴 먹먹한 감동을 건져 내는지, 혼자서 두고두고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문득, 수많은 감동의 공이 될 대구축구장이 생각났습니다. 특히 올해는 모두가 ‘대구’를 주목하고 있던 터였습니다. 국내 프로축구에 최적화된 축구전용구장 DGB대구은행파크가 개장한 데다 새 집 주인공이 될 대구FC가 지난해 FA컵 우승으로 아시아챔피언스리그(ACL)에 첫 진출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작부터 환상적이었습니다. 대구는 리그 최강 전북현대모터스와 개막전에 맞붙어 무승부를 거두면서 K리그 우승자와 FA컵 우승자가 동등함을 축구팬에게 알렸지요. 그 후로 4월이 넘어서도 상위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대박이라 불리는 DGB대구은행파크는 연일 매진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대구 사람 스스로 놀라워하고, 국내 모든 축구팬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구발 축구 열풍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고, 언론도 앞다퉈 대구 기사를 쏟아내고 있지요.

동시에 대구 지역사회도 바뀌고 있습니다. 신나는 일 없던 대구가 기쁨과 환호로 가득하고, 자신감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자신감은 정현종 시인의 시구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쓰러지지 않았기에 더 값어치 있습니다. 2부 추락과, 강등 후보, 텅 빈 경기장으로 대표되던 대구축구가 거짓말처럼 국내 축구의 심장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시민’의 이름으로 탄생한 시민구단이기

에 그 자신감은 오롯이 시민의 것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도심 속 경기장은 새로운 대구의 랜드마크가 됐고, 대구 선수들은 새로운 동화를 써 내려가며 소구성 강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에 대한 기대가 크고, 상권도 들쭉이고 있습니다. 밤이면 경기장 주변의 찬란한 조명은 대구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 지역 프로구단에서 대박을 벤치마킹하고 있고, 서울에서는 대박을 중심으로 한 대구 투어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유튜버들도 대구를 다녀온 체험 영상을 곳곳에 올리면서 축구 하나가 대구를 바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분위기에 들뜨거나 취해만 있다면 우리는 뒤편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축구 붐을 분석하고 체계화해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힘이 대구시민을 운동장으로 불러 모으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정현종 시인이 ‘공’ 하나에 진한 감동을 건져 내듯, 우리 역시 ‘축구’에서 수많은 ‘콘텐츠’와 ‘대구정신’을 건져 내야 합니다. 그리하여 ‘축구’가 축구만이 아닌 도시의 이야기, 대구의 정신을 상징해야 합니다. 그 정신은 곧 대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바르셀로나와 맨체스터라는 도시도 축구를 통해 더욱 위대해졌습니다. 이제 대구 차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축구’를 부추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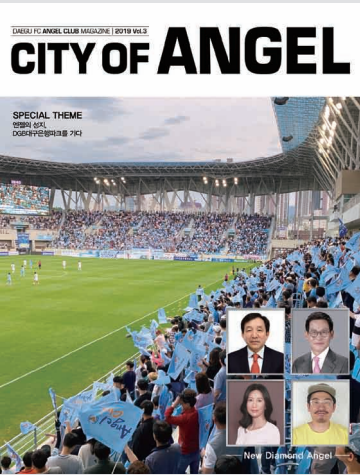
“축구, 대구를 부탁해!”

대구FC엔젤클럽 회장 이호경



CITY OF ANGEL

DAEGU FC ANGEL CLUB MAGAZINE
2019 Vol.3



DGB대구은행파크는 열정의 극장이다. 그리하여 대구는 이제 축구도시다! 이 도시에는 축구천사 '엔젤'과 '엔시오'가 산다! '대구축구', 그리고 '엔젤'의 전성시대'가 시작됐다.

아래는 최근 다이아몬드엔젤에 가입한 김상태 평화정공(주) 회장, 성점화 (주)뉴프라임 대표, 문경화 하안얼굴에뽀뽀매(주)로로피아니 대표, 박진현 (주)홀삭스 대표.

계간 | 2018년 10월 10일 등록

등록번호 | 수성, 바00011

발행일 | 2019년 6월 1일

발행기관 | (주)엔젤클럽

발행·편집인 | 이호경

편집장 | 김용하

편집위원 | 강정영, 손지훈, 박다은, 조은비

디자인 | 멀티에드(대표 김정미)

포토그래퍼 | 하제연

디자이너 | 이지은

인쇄 | (주)케이프린텍(대표 한금재)

(주)엔젤클럽

42064 대구광역시 수성구 팔현길 212(만촌동, 호텔 인터불고 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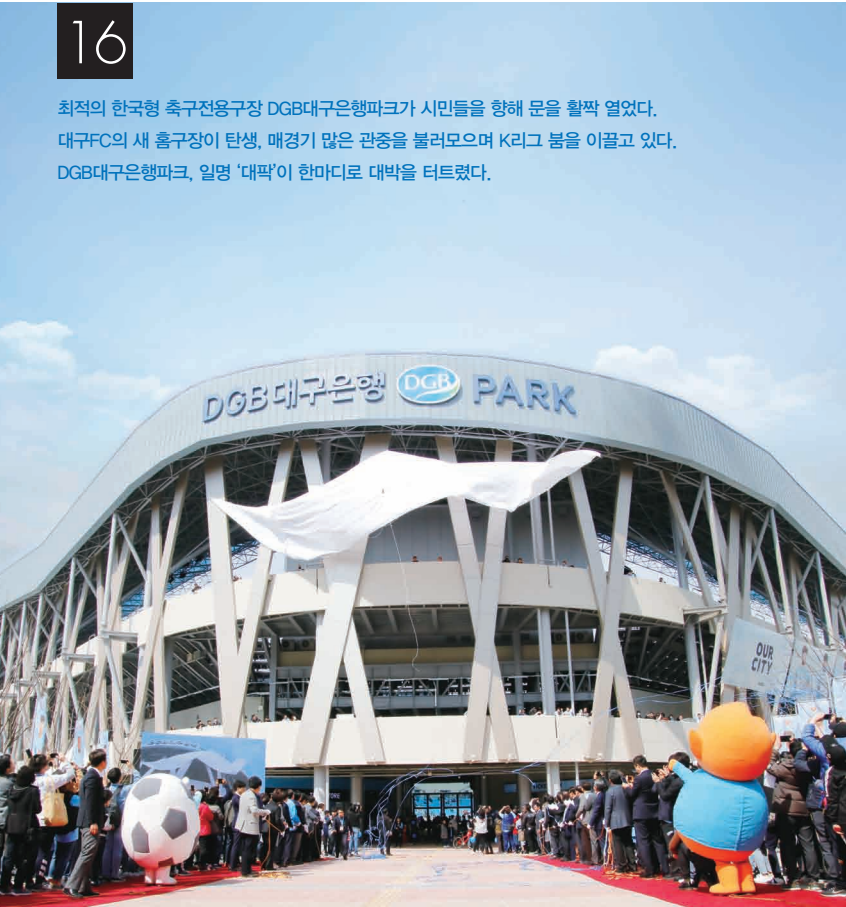
전화 | 053-602-7307

팩스 | 053-602-7306

이메일 | daeguangel@naver.com

16

최적의 한국형 축구전용구장 DGB대구은행파크가 시민들을 향해 문을 활짝 열었다. 대구FC의 새 홈구장이 탄생, 매경기 많은 관중을 불러모으며 K리그 붐을 이끌고 있다. DGB대구은행파크, 일명 '대박'이 한마디로 대박을 터트렸다.



32



36



42



98



94



COLUMN ESSAY

4 축구, 대구를 부탁해!

COVER STORY

8 엔젤 깃발 휘날리며

SPECIAL THEME

- 14 Report
한국 축구의 봄! 대박이 대박이다
DGB대구은행파크
- 20 Interview
이상길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 28 사진으로 보는 DGB대구은행파크

ANGEL WITH US

- 32 다이아몬드 엔젤 列傳
박진현 (주)홀삭스 대표
- 36 젊은 그대
조승우 이지컴퍼니(주) 대표
- 40 Unsung Angel
한종건 호텔인터불고 대구 야간충지배인
- 44 엔젤 앤 플레이어
대구FC의 허리, 츠바사
날개를 펴고 비상하자!
- 50 히로시마 원정
떴다, 엔젤원정대~!
- 54 엔젤 문화
활자들이 빛어 낸
대구FC엔젤클럽 기록의 역사
- 56 엔젤 브리핑
- 57 Angel & Life
- 60 엔젤 포토존
- 64 엔젤카가 간다

DAEGU FC REPORT

- 72 대구FC 소식
- 77 대구FC 선수 프로필

HALF TIME TALK

- 90 Angel Insight
여유와 배려, 엔젤의 품격 -김유석 엔젤
지금, 베트남에선 -박태영 엔젤
- 94 안용모의 세계의 축구 현장
축구의 나라, 칠레를 가다
- 98 특별기고
대구FC엔젤클럽의 성공 비결은?
- 100 2019 DAEGU FC MATCH SCHEDULE
- 101 엔젤클럽 스폰서
- 102 다이아몬드 엔젤
- 104 엔젤 명단
- 115 공지사향
- 엔젤클럽 가입방법
- 엔젤클럽 가입신청서

77



엔젤 깃발 휘날리며



선수들을 응원하는
엔젤 깃발 부대

엔젤 깃발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그라운드를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시티즌 오블리주’의 손수건
축구사랑은 바람처럼 스탠드에 나부끼고
오로지 맑고 곧은 대구 사랑의 꽃대 끝에
시민정신은 천사처럼 날개를 펴다
아아 누구던가
이렇게 가슴 벅찬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줄을 안 그는

“엔젤!”

— 유치환의 시 〈깃발〉에서 차용(借用)

엔젤의 상징이 된 깃발 부대

엔젤 깃발 나부낀다! DGB대구은행파크(이하 대박)의 명물 중 하나는 엔젤 깃발 부대다. 경기가 열릴 때면 수백 개의 깃발이 진주하는 천사들처럼 경기장에 물결친다. 예전에도 엔젤 깃발은 이름값을 했다. 30여 개의 중간 정도 크기(90cm×120cm)의 깃발이 늘 엔젤과 함께했다. 홈경기는 물론 원정 응원에서도 엔젤 깃발은 엔젤의 존재를 상징했다. 지난해 12월에 열린 FA컵 결승전 당시 울산 원정석을 수놓은 엔젤 깃발을 보고 선수들은 힘이 났다고 했다. 수비수 홍정운 선수는 “엔젤 깃발을 보면 힘이 난다.”고 했고, 임태건 부회장은 사비를 털어 깃발 30장을 제작했다. 그 후 엔젤 깃발은 엔젤클럽 응원의 상징이 되기도 했다. 한 때는 각 분과별로 엔젤 깃발을 제작해 경기마다 게양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이처럼 엔젤의 상징이 된 깃발은 2019년에도 이어졌다. 특히, 5월 3일 대박에 대박이 터졌다. 소형 엔젤 깃발(40cm×60cm) 400개를 제작, 엔젤존에 나눠준 것이다. 이 깃발들은 기존 30여 개의 대형 깃발과 함께 푸른 물결을 이뤘다. 마치 유럽챔피언스리그 맨시티와 토트넘의 홈경기장의 일부를 떼낸 듯 엔젤존은 하늘색 깃발로 가득 찼다. 반응은 뜨거웠다. 박금화 엔젤은 “엔젤 깃발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며 기뻐했고, 깃발 제작에 참여했던 박기원 엔젤은 “깃발 제작에 조금 참여한 사람으로서 깃발 흔드는 장면이 너무 좋았다. 앞으로 더 많이 흔들어 대박의 상징이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축구팬들의 공간인 축구 커뮤니티도 반응했다. 유머, 축구, 게임 등을 통합한 모 커뮤니티에서 한 네티즌이 ‘오늘 엔젤 깃발 부대!’ 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자 ‘포텐’(잠재력이 폭탄처럼)이 터졌다. 댓글도 잇따랐다. “솔직히 맨시티 비교하는 거 웃어넘기는 수준으로 봤는데 이진 줌 소름끼치더라” “마드리드 같은 느낌” “엔젤 아재들 열정 젊은이들 못지 않다!” 이외에도 엔젤 깃발이 전 좌석으로 확대되었으면 한다는 의견, 또 S석 서포터즈와 함께 깃발 응원을 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는 내용도 많았다. 댓글 가운데는 재미있는 내용도 있었다. 바로 ‘깃발 만드는 공장 대표가 엔젤클럽 회원’이라는 글이었다. 번지수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다. 이번에 깃발을 제작한 삼성애드 전석진 대표는 엔시오 회원이다. 전석진 엔시오는 이번에 깃발 제작을 의뢰받자 최소 경비, 즉 실비만 받았다. 시즌 초부터 엔시오에 가입한 전석진 대표는 “경기장이 푸른 깃발로 물들 때 보람을 느꼈다”며 “미약하지만 최소 경비로 깃발을 제작했다. 앞으로도 힘닿는 데까지 지원하겠다.”고 흐뭇해했다.

깃발 마련에 십시일반, 전 경기장을 푸른 깃발로

엔젤 깃발이 이처럼 축구 커뮤니티에서 주목 받으며 엔젤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축구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모 엔시오는 “개인적으로 뿌듯했다... 나도 엄연한 개인스폰서라는 작은 자부심^^”이라며 자부심이 생겼다고 했다. 이에 따라 엔시오 가입도 늘었다. 어느 네티즌의 짧은 댓글이 이날 분위기를 대변했다. “이것이 엔젤이다!” 이번 깃발 제작은 엔젤클럽 엔젤본부 응원 분과에서 주도했다. 엄태건 엔젤본부 상임부회장은 엔젤존과 서포터즈 응원석이 멀어 시너지 효과가 떨어진다고 판단,

엔젤 깃발을 정비하고 있는 엔젤, 엔시오 회원들



단순하면서도 시각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다. 대구FC서포터즈 그라지에 (회장 노재관) 관계자들과 만나 머리를 맞댔다. 마침내 정영준 응원 분과 상임이사과 박기원 운영이사가 아이디어를 냈다. 답은 바로 평소 엔젤에서 밀어 오던 ‘깃발’이었다. 우선 S석 서포터즈들이 사용할 수 있는 대형 깃발(3m×4.5m)과 대형 현수막을 제작, 지원했다. 서포터즈들이 원하는 디자인 그대로 만들어 지난 4월 20일 포항전 때 전달했다. 이와 함께 엔젤존은 엔젤 깃발로 물들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영준 상임이사과 박기원 운영이사가 크기 등과 관련하여 사무국과 협의했고, 빠른 시간 안에 진행기로 하고 디자인 작업에 들어갔다. 당초 200개 수준이었으나 엄태건 부회장이 400개 깃발 제작을 제안했다. 일사분란하게 작업은 이뤄졌고, 5월 첫 경기에 엔젤 깃발 부대가 위용을 드러냈다. 깃발은 선수 입장 전부터 나부꼈다. 엔젤존의 엔젤과 엔시오는 모두 일어나서 깃발을 흔들며 선수들을 환영했고, 선수들은 깃발을 보며 가슴 벅차올랐다. 방송과 언론에도 잡히면서 대박의 또 다른 불거리를 제공했다. 엔젤 깃발이 마련되자 엔젤의 봉사정신도 살아났다. 엔젤 응원 분과 중심으로 미리 경기장에 와서 파손 깃발을 수선하고, 배치했다. 또 경기가 끝나면 엔젤 회원 대부분이 다음 경기를 위해서 주위의 깃발을 수거하고, 반납에 앞장섰다. 엔젤클럽 집행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추가로 400개를 제작하기로 했다. 엄태건 상임부회장은 “엔젤석에 깃발이 가득해야 한다. 그래야 효과가 높다. 하는 김에 추가로 제작하여 엔젤의 상징과 전통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추가 제작을 추진했다. 이호경 회장은 “엔젤 깃발의 효과가 높으면 향후 후원사를 구해서 전 경기장을 푸른 깃발로 가득 채우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며 엔젤 깃발을 확대기로 했다.⁴⁾



SPECIAL

엔젤의 성지, DGB대구은행파크를 가다

THEME

한국 축구의 불! 대박이 대박이다

DGB대구은행파크

최적의 한국형 축구전용구장 DGB대구은행파크가 시민들을 향해 문을 활짝 열었다.
대구FC의 새 홈구장이 탄생, 매경기 많은 관중을 불러모으며 K리그 불을 이끌고 있다.
DGB대구은행파크, 일명 '대박'이 한마디로 대박을 터트렸다.



대구FC, 새 등지에서 새 역사 쓴다

지난 3월 9일 대구FC의 새 보금자리, DGB대구은행파크(이하 대구은행파크)가 문을 열었다. 지난해까지 6만 7,000여 석 규모의 대구스타디움을 홈구장으로 쓰던 대구FC가 올 시즌 1만 2,000여 석의 대구은행파크에서 팬들을 만나고 있다. 대구 최초 축구전용구장 대구은행파크는 기존 대구시민운동장을 리모델링, 지난 2017년부터 올해 1월까지 조성 공사를 거쳐 대변신했다. 대구 외곽에 위치했던 대구스타디움에서 대구 중심으로 홈구장을 옮겨와 교통의 불편함까지 해소했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 북구청역에서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해 대구시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쉽게 찾아올 수 있는 대구 도심 속 랜드마크가 됐다.

대구FC는 대구광역시청으로부터 경기장 명명권과 부대시설 운영권을 지원 받고 새 홈구장에서 완벽 적응, 승전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장, 실내 외벽, 관중석 등은 팀 상징색인 하늘색을 메인으로 사용해 활기찬 분위기를 자아낸다. 입구부터 천장까지 발길마다 반겨주는 대구FC 로고와 청량한 컬러 덕에, 경기 시작 전부터 관중들의 마음은 설레임으로 들뜬다. 벽면에는 대구FC 창기부터 현재까지 유니폼 변천사가 그려져 있어 대구 시민구단의 역사가 한 눈에 들어온다. 시민에게 활짝 열린 대구은행파크 덕분에 대구FC는 홈 개막전 이후 4경기 연속 매진 행진을 세우며 그 열기를 입증하고 있다.



입구부터 천장까지 발길마다 반겨주는 대구FC 로고와 청량한 컬러 덕에, 경기 시작 전부터 관중들의 마음은 설레임으로 들뜬다.



1

팬들과 더 가까이! 한국형 스타디움 'DGB대구은행파크'

2002한일월드컵 이후 한국은 세계적 규모의 축구장을 10여 개나 가지게 됐다. 웅장한 경기장을 보며 축구 선진국이 된 듯 했지만 관중이 가득 메운 경기장의 모습은 실현되지 못했다. 전국에 제 역할을 다 못하는 매머드급 경기장이 산재한 가운데, 대구은행파크의 탁월한 선택이 주목받고 있다. 비록 아담한 규모지만 여기에는 팬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고자 하는 대구FC의 마음이 담겨 있다. 지난 시즌, 2018KEB하나은행 FA컵 결승 당시 2만여 명의 팬들이 대구스타디움을 찾았다. 하지만 6만 7,000여 석의 커다란 경기장을 꽉 채울 수는 없었다. 대구은행파크는 평균 관객 수를 고려해 1만 2,000여 석 규모로 조성, 팬들이 경기장을 가득 메워 경기장의 열기를 뜨겁게 달궜다. 경기장을 향한 팬 사랑을 입증하듯 사람들은 대구은행파크를 줄여서 '대박'이라 부른다. 아담하면서 밀도 있는 '한국형 스타디움'의 정답은 이제 대박으로 통한다.

거기에 그라운드와 관중석의 거리는 단 7m, 열혈 감독과 선수들의 투혼, 작전 상황 등을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어 축구 경기의 현장감을 더욱 생생히 느낄 수 있다. 국내 최초 경량 알루미늄 소재로 만들어진 관중석 바닥은 대구은행파크만의 특색. 합성 소리에 울림을 더해 웅원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구장의 특성을 살린 발 구르기 응원이 웅장한 소리로 구장을 가득 메워 분위기를 고조시키니 선수들의 에너지도 더욱 치솟는다.

경기장 4면을 둘러싼 지붕도 사계절 쾌적한 관람을 위한 필수 요소. 햇빛과 비 등을 차단하는 동시에 관중들의 환호성이 경기장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아 경기장 안 공명은 높이고, 소음 공해는 확 줄였다. 또한 경기장을 찾지 못하고 TV나 온라인으로 축구 경기를 시청하는 관객들을 위한 배려도 더했다. 유럽 프리미어리그처럼 팬들의 시선을 고려해 카메라 위치를 3층 높이까지 낮춘 것이다. 관객의 입장에서 관람 서비스 질을 높였다. 오로지 스포츠 관람을 위한 최고의 시설, 축구를 더욱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대구은행파크가 있어, 대구 축구가 살맛 난다.

- 대구FC-제주유나이티드
DGB대구은행파크 개장 경기(2019. 3. 9.)
- 2 DGB대구은행파크 역사적인 개막전 기념 촬영

'DGB대구은행파크' 어떻게 탄생했나?

DGB대구은행파크는 대구FC를 꾸준히 응원해온 스폰서인 DGB대구은행이 명칭사용권(Naming Rights)을 획득해 붙인 명칭이다. DGB대구은행에 따르면 직원 공모로 이름을 정했으며, '공원(Park)'이라는 명에서 알 수 있듯 지역민과 축구팬들이 즐기면서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다. 'DGB Park' 또는 'D Park'의 줄임말로 볼릴 경우 발음이 용이할 것도 고려해 세심하게 만들어졌다. 이름이 정해지기 전 가칭으로 썼던 '포레스트 아레나(Forest Arena)'는 DGB대구은행파크의 두 번째 이름이 됐다. 기업명을 구장 이름에 사용할 수 없는 아시아축구연맹 규정상 아시아챔피언스리그(ACL) 때는 '포레스트 아레나'로 불린다. 도심 속 숲의 테마로 경기장을 건축했기 때문에 숲을 의미하는 포레스트(Forest)와 1만여 석 규모 경기장을 칭하는 아레나(Arena)의 합성어다.

● DGB대구은행파크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로 191



2



‘우리 대박’, 대구의 일상을 바꾸다

지난 3월부터 판매 개시한 새 전용구장 맞춤형 2019시즌권 ‘D멤버십’이 품절되며 대구 축구 열풍을 입증했다. 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리는 경기마다 화제를 부르는 가운데, 역사적인 전용구장 첫 골은 지난 3월 9일 개최된 K리그1 제주유나이티드와의 개장 첫 경기에서 에드가(76분)가 기록했다. 84분 김대원의 추가골로 제주유나이티드 FC에게 2:0 승리를 거뒀다. 대구FC는 기분 좋게 K리그1 2라운드 개장 홈경기를 승리로 이끌며 관중 동원과 흥행에 성공했다.

경기가 없는 날에도 대구은행파크는 시민 집합소가 된다. 지난 5월 22일 광주에서 열린 아시아챔피언스리그(ACL) 광주우전 때 엔젤클럽의 요청으로 대구은행파크를 개방해 전광판 중계와 단체 응원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장내 아나운서와 치어리더, 마스코트 리카와 빅토도 경기장을 찾아 시민들과 함께 응원전을 펼쳤다.

대구은행파크 내 매장의 종류나 입점 품목은 전문가에 일체 맡겼다. 구단이 자유롭게 시설과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서비스 품질도 높아졌다. 축구경기장을 찾는 또 하나의 즐거움인 치맥, 피자 등 먹거리와 카페, 식당 등 소소한 재미가 있는 곳. 시민들이 이제 대구은행파크로 바깥길을 온다. 대박은 대구의 일상을 바꾸어가고 있다.

원정팬도 매료한 ‘대박 신드롬’

DGB대구은행파크의 빼어난 시설, 독특한 응원 문화가 전국으로 입소문 나면서 원정팬 방문이 쇄도하는 등 대한민국에 ‘대박 신드롬’이 불고 있다. 지난 5월 26일 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린 대구FC와 수원삼성 경기에 1,000여 명의 수원 팬들이 찾았다. 기존 원정석 550석은 예매 시작 당일 매진되어 500여 석을 추가 배정했지만, 그마저도 지난 21일 오전 전석 완판됐다. 이는 대구은행파크 개장 이후 가장 많은 원정팬 수이며(2019년 5월 26일 기준), K리그1에서 1,000명 가까운 원정팬이 모이는 것도 극히 드문 일. 앞서 지난 19일 열린 대구FC와 인천유나이티드 경기에도 250여 명의 원정팬이 대구은행파크를 방문했다. 이처럼 수많은 타 구단 팬들이 대구은행파크를 찾으면서 그동안 대구에서 볼 수 없었던 ‘응원 대결’이라는 새로운 볼거리도 생겨났다.

홈·원정팬 가리지 않고 대구은행파크의 매력에 빠진 이유는 친관중적으로 만들어진 경기장의 역할이 크다. 경기장 어디에서 관람하더라도 선수들의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니 생동감을 만끽하고 싶어 찾아

-
- 1 DGB대구은행파크 중앙광장
- 2 1층 로비에서 우정을 나누는 마스코트 리카와 빅토
- 3 대구FC 팬들의 열띤 응원

오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알루미늄 바닥을 이용한 대구만의 응원 문화가 소문난 것도 한몫한다. 대구은행파크에서 경기가 열리고 나면 축구팬사이트나 SNS에 대박 직관 인증 게시물로 가득 메워질 정도. 축구팬들의 관심이 쏠리는 라이벌전이나 1위 또는 강등이 결정되는 최종전이 아닌, 리그 중반에 수많은 원정팬이 운집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박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다.

대구를 넘어 전용구장의 롤모델로

내실있는 전용구장의 흥행을 바라보며 여러 지자체와 구단에서 대구은행파크 벤치마킹에 나서고 있다. 경기 부천시는 보조경기장에 가변석을 설치해 전용구장 느낌을 냈고, 광주FC는 아담한 규모의 전용구장 신축 계획을 발표했다. 광주는 120억 원을 투입해 7,000여 관중(가변석까지 포함해 1만여 관중)을 수용하는 경기장을 구상 중이다. 지금껏 크기와 규모, 외관에 치중했던 경기장 건립 시각이 달라졌다는 점은 커다란 변혁이자 성과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가 대구은행파크 주변 조성에 나섰다. 도시철도 1호선 대구역과 3호선 북구청역을 중심으로 도시 곳곳 대구FC를 문화 콘텐츠로 형상화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대구은행파크를 더욱 명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구은행파크가 포함된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구은행파크와 시민의 상생이 만들어낼 눈부신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본다.

팬과 구단 위한 정체성 가득 담아

지난해 11월, 대구은행파크를 가득 메우기 위해 대구FC엔젤클럽의 시민엔젤인 ‘엔시오’가 탄생했다. 지난 1월까지 200여 명에 불과했지만, 올 2월부터 최근까지 300여 명이 단숨에 늘었다. 엔젤클럽 회원도 최근 대폭 늘어, 엔젤과 엔시오를 합한 엔젤클럽 총 회원은 1,700여 명에 달한다. 팬 전용좌석, 포토존 등 대구은행파크 곳곳에 팬들을 위한 배려와 애정이 묻어나는 이유다.

대구은행파크 내 W1, W2, W3 구역 750석 규모의 팬 전용석인 엔젤존, 다양한 행사가 벌어지는 엔젤룸, 인증 사진을 남기는 엔젤포토존 등 팬들을 위한 특별한 장소들이 마련되어 있다. 2층 클럽역사관에서는 시민구단 대구FC의 발자취와 창단 당시의 물품, 조현우 선수의 2018러시아월드컵 유니폼도 만날 수 있다. 대구FC를 상징하는 푸른색 디자인이 눈에 띄는 선수룸은 대구FC 선수들만의 아늑한 재충전의 공간. 팬과 구단의 정체성을 담은 대구은행파크가 대구 축구의 사랑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41

이상길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대구FC 창단 주역을 만나다

대구 시민구단의 창단 주역이자 대구FC의 열성팬인 이상길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은 든든한 독심으로 대구FC의 비상을 가능케 했다. 축구전용구장 시대의 시작과 함께 이상길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을 만나 소회와 발전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대담. 대구FC엔젤클럽 이호경 회장 | 사진. 하제연 홍보이사



—— 요즘 대구가 축구로 행복합니다. 시민구단 창단 주역으로서 소회가 어떠십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체육진흥과장으로 재직하던 2001년 대구FC 창단 계획을 수립하여, 준비위원회를 거쳐 창단까지 동료들과 코피가 날 정도로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당시 과의 강철 같은 결속력과 화합은 시청 내에서도 알려질 정도였으며, 동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FC가 인고의 세월을 거쳐 비상하고 있는 것을 보니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무엇보다도 대구FC의 든든한 버팀목인 250만 대구 시민, 엔젤클럽과 더불어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공식 일정이 없으면 경기가 있을 때마다 관람하고 있습니다.

—— 대구FC는 국내 스포츠 사에서 큰 의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민프로축구단의 출범 배경 등 당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구스타디움은 2002한일월드컵을 치르기 위해 건설한 6만 5,000여 석의 초대형 경기장으로 월드컵 이후 활용 방안이 큰 과제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교통도 불편하고 인가도 없는 곳에 위치한 대구스타디움에 생명을 불어 넣고, 활용도를 높여 대구의 랜드마크로 만들어야 한다는 과제가 있었으며, 시민에너지를 결집하고 지역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던 중 월드컵으로 촉발된 축구 붐을 계기로 지역프로축구단 창단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창단 당시만 해도 시민구단이라는 개념은 매우 생소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영국 맨체스터유나이티드, 일본 요코하마FC, 가시마앤티레스, 산프레체 히로시마 정도였으며, 대부분 자치단체, 연고기업 연합형태의 시민구단이었습니다. 대기업 팀 유치의 지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기존팀 연고지 이전도 가능성이 희박했으며, 지역기업 연합형태의 창단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여건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시민과 지역기업이 참여하는 형태의 순수한 시민구단을 창단하는 큰 모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보직이 대구시에서 처음으로 하는 프로젝트(대구엑스코 건립, 월드컵·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 북한 응원단 협상, 첨단복합의료단지 조성 등)를

시민에너지를 결집하고 지역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던 중 월드컵으로 촉발된 축구 붐을 계기로 지역프로축구단 창단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하였던 것 같습니다. 사무관 시절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상법상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대구엑스코(전시장)를 건립하며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주 모집 경험을 살려 시민 대상의 주주 모집을 구상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것에 대한 많은 고민과 부담이 있었지만, 조해녕 시장님께서 하신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는 말씀에 용기를 얻어 동료들과 함께 앞만 보고 뛰었습니다. 구단 명칭은 인터넷 등을 통해 공모한 결과 '대구FC' '대구 유나이티드' '대구 애플즈' 등 10여 개의 후보작 중 '대구FC'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시민구단 취지에 따라 창단에 필요한 재원과 운영비 등을 시민과 기업의 공모주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1주당 5,000원, 10주 단위로 청약을 받았으며 시민과 학생, 기업인과 더불어 경북도민들께서도 적극 동참해 주신 덕분에 3,261,950주를 발행하여 48,456명(개인주주 47,453명, 법인주주 1,003명)의 주주가 참여하여 163억 원을 모금할 수 있었습니다. 대구스타디움 서편 광장에 주주동산을 조성하고 주주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새겨 그 고마움을 길이 전하고 있습니다. 참여해 주신 시민들의 고마움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 시민구단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계실 때도 대구에 오면 경기장을 찾고, 서포터즈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비로 사주시는 등 에피소드들이 많습니다. 부시장님에게 대구FC는 어떤 의미입니까.

대구FC를 창단한 지 벌써 17년이 지났습니다. 과장으로서 첫 보직이 체육진흥과장이었고 당시 월드컵 대회와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프로축구단을 설립하는 것이 중요한 미션이었습니다. 신체적으로 혈기왕성할 때라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임무완수를 위해 매달렸으며, 전 동료들이 일사불란하게 같은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일당백의 동료들이 자랑스럽고 너무 감사합니다.

솔직히 대구FC는 저에게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스포츠는 경제적인 측면 이외 지역 사회와 시민에게 많은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운영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정의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y)

만 생각하면 저의 자랑이고 자부심이지만, 주주 입장을 생각하면 넓은 해량을 구하고 싶은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맨땅에 헤딩하듯이 시민구단 창단이라는 큰 임무가 주어졌을 때, 가끔씩 이견도 있었지만 서포터즈의 적극적인 응원과 질책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대구FC 서포터즈에 대한 개인적인 감사와 애정의 표시(?)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 대구FC는 일반 프로구단과 달리 시민구단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03년 창단 후 이제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 같은데, 부시장님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시민구단’은 어떤 모습입니까.

시민구단은 시민, 지역기업이 창단 또는 운영의 주체로 참여하는 구단으로서 지역주민, 지역기업, 자치단체, 구단 간의 일체감이 형성되어 운영하는 것이 이상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구FC는 시민구단이라는 한계로 인해 지속적으로 재정 부족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2016년 결성된 대구FC엔젤

- 1 대구FC엔젤클럽 이호경 회장(왼쪽)과 대담하고 있는 이상길 행정부시장 (오른쪽)
- 2 대구FC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이상길 행정부시장

클럽이 대구FC의 든든한 후원자를 넘어 대구FC 활성화는 물론 명실상부 시민구단임을 확인하는 기폭제(Trigger Device) 역할을 하고 있고, 국내 최초로 축구전용구장에 대한 명칭사용권을 판매하는 등 시민구단의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구를 통해 시민들에게 기쁨과 자긍심을 심어 주고, 지역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성 배양과 애향심 고취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후보 선수와 주전 선수 모두에게 대구가 기회의 땅이 되도록 선수를 육성하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자생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남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최근 들어 시민들이 대구FC를 ‘우리 팀’이라고 많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런 주인의식을 갖도록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대구FC가 창단한 지 17년이라는 참으로 긴 세월이 흘러갔습니다만 그동안 제대로 된 성적 한 번 못 내고 만년 하위 그룹에서 맴돌다 보니, 창단의 기쁨도

오래 가지 못하고 시민과 팬들로부터도 외면 받아온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지역 경제 여건 상 타 구단처럼 후원사가 충분하지 못한 한계를 김범일 시장님과 권영진 시장님께서 구단주로 취임한 이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구단 운영의 기반을 구축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선수급의 기량과 축구마니아인 권영진 시장님의 축구사랑과 대구FC엔젤클럽의 출현으로 시민구단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느 도시에서도 볼 수 없는 대구FC엔젤클럽이라는 자발적인 순수한 민간 후원 조직이 만들어져 진정한 시민구단으로 성장해 가고 있어 얼마나 기쁘지 모르겠습니다. 시민구단은 반드시 시민이 주인이 되어야 발전할 수 있는 만큼 구단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지금의 엔젤클럽 활동이 시민운동으로 전개되어 축구 경기가 있는 날은 또 하나의 유명한 대구시민의 축제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최근 시에서는 대구 축구 붐과 함께 DGB대구은행파크 일대를 축구 테마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사회인 야구장과 DGB대구은행파크를 구심점으로, 내년 6월까지 테니스장, 다목적 체육관 등 시민운동장 도심복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운동, 문화, 휴식 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북구청에서 삼성창조캠퍼스를 잇는 옥산로 일대를 시민들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즐기고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축구장 가는 길’ 콘텐츠가 포함된 ‘옥산로 테마거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약 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느티그늘길’과 ‘플라타너스길’을 조성할 예정이며,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을 수행 중입니다. 조속히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 내 착공하여 2020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 전체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여 근린 재생형 도심재생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가로 정비 및 환경개선 사업을 1차적으로 시행하고, 장기적으로 남측의 슬럼화된 지역에는 문화와 예술 등이 어우러지는 공간을 도심재생계획에 반영하여 인근 상업·주거지역과 도심복합스포츠타운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최적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지금의 엔젤클럽 활동이 시민운동으로 전개되어 축구 경기가 있는 날은 또 하나의 유명한 대구시민의 축제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말씀 하신대로 테마가 있는 ‘축구장 가는 길’이 조성되면 많은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축구와 도시 문화를 즐기는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을 접목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DGB대구은행파크는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이 편리해 누구나 쉽게 접근 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대구FC 선수들의 이미지를 활용한 홍보와 경기장 안내 표지판 등을 통해 축구 열기를 느끼면서 경기장을 찾을 수 있도록 대구 도시철도 대구역과 북구청역 내·외부에 홍보 이미지와 유도 사인을 설치하였으며, 앞으로도 대구시민뿐만 아니라 대구를 찾는 축구팬들도 감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 엔젤에 대한 관심도 각별하시다고 들었습니다. 엔젤클럽의 역할은 어느 정도이고, 성공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행정안전부에 근무할 당시 엔젤클럽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회원들이 재정





후원은 물론 경기장을 찾아 새로운 응원 문화까지 만들어 주시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대구 FC가 2부에 강등되어 참으로 어려웠던 그 시절 혜성 같이 나타난 것이 바로 엔젤클럽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엔젤클럽이 없었다면 대구FC도 지금 이 자리에 절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호경 회장을 비롯한 모든 회원님들이 축구를 넘어 지역의 공공선을 고양시키고 헌신하는 새로운 지역사회 문화를 창달하려는 의지의 결과가 바로 성공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 최근 엔젤클럽과 관련하여 타 구단에서 벤치마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높이 평가하는 대구정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타 도시에서 엔젤클럽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대구FC와 엔젤클럽을 방문하고, 문의가 많은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구·경북은 역사의 구비마다 새로운 시대정신을 제시하며 민족 역사를 창조해 왔습니다. 원효는 삼국통일의 어지러운 사회 질서를 화쟁사상을 통해 수습하였고, 일연은 고려 대몽항쟁기에 단군신화를 최초로 제시하며 민족 자존감을 고취시켰습니다. 정몽주, 길재, 김숙자, 이연적, 이항으로 이어지는 성리학의 사물의 본질 탐구에서 체득한 비판정신과

이호경 회장을 비롯한 모든 회원님들이 축구를 넘어 지역의 공공선을 고양시키고 헌신하는 새로운 지역사회 문화를 창달하려는 의지의 결과가 바로 성공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비정신은 임란의 의병 활동으로 이어졌고, 국권 상실의 위기에는 국채보상운동, 일제 식민 치하에서는 독립운동, 근대화 초기에는 새마을운동 등 역사의 고비마다 그 모습을 달리하면서 나라의 갈 길을 선도해 온 자랑스러운 고장입니다. 바로 이런 선조들의 정신이 대구의 정신이 아닌가 싶으며 엔젤정신 또한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시민 주도 운동이 전개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최근 엔젤클럽은 자연스럽게 회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구FC가 시민구단임을 인식하고 ‘우리 팀’으로 여기며 선수들을 ‘가족’처럼 생각합니다. 특히 젊고 재능 있는 기업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엔젤의 대구FC에 대한 재능기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엔젤클럽에는 다양하고 많은 젊은 사업가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소식도 듣고 있습니다. 대구FC는 분명 시민이 주인인 시민구단입니다. 따라서 명문구단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민의 참여가 절대 필요한 만큼 시민 누구나 구단에 도움이 되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며 직접 재능기부할 부분도 있다면 충분히 받아 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축구계에는 ‘성적은 늘 좋을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경기력 향상과 프랜차이즈 스타 발굴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염두해 두고 계신지요.

대구 체육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시민 공청회 등을 거쳐 대구스타디움 서편에 2015년부터 대구체육공원 선수촌을 조성해 왔습니다. 선수촌 내에는 체육회관,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합숙소, 대구FC 클럽하우스, 연습구장 등이 집적화되어 있습니다. 대구FC 클럽하우스는 2018년 1월 착공하여 현재 내부 인테리어 등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이며 이번 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훈련하는 것은 경기력 향상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선수들이 안정된 주거환경 속에서 선진 스포츠시스템에 따라 훈련하게 되어 사기 진작과 경기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선수 육성을 위해 2007년부터 초·중·고 유소년 축구클럽을 운영해 오고 있어 현재 상주상무에서 뛰고 있는 현풍고등학교

엔젤클럽의 가치를 절대 잃지 않고 시민운동으로 승화시켜 주시길 당부드리며, 대구FC는 대구시가 지원하는 구단이 아니라 시민 스스로 운영하는 주체가 되는 그날이 꼭 일찍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출신 신창무 선수처럼 우수한 기량을 가진 선수가 많이 배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엔젤클럽 발전을 위한 조언이나 바람을 부탁드립니다.

이호경 회장을 비롯한 모든 회원님들께 구단주를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부터 전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대구FC엔젤클럽이 참으로 어려울 때 태동되어 지금까지 초심을 하나도 잃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 왔습니다. 또 많은 재정적 도움은 물론 늘 텅 비고 재미없었던 대구스타디움의 관중석을 엔젤님들의 노력으로 즐거운 경기장으로 변모시킨 덕분에 지난해 창단 첫 FA컵 우승까지 하고, 이제 새로운 경기장에서는 매진 행진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엔젤클럽의 가치를 절대 잃지 않고 시민운동으로 승화시켜 주시길 당부드리며, 아울러 대구FC는 대구시가 지원하는 구단이 아니라 시민 스스로 운영하는 주체가 되는 그날이 꼭 일찍 왔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 41





박성수 엔젤

올 시즌은 내가 알고 있던 팀이 맞나 싶을 정도로 대구FC를 향한 시민들의 호응도 높고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어요. 이 열기가 꼭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뛰어드는 선수들의 모습에 감동하고 있어요. 원정 경기를 갈 때마다 다른 구장들의 거리감이 부러웠는데 DGB대구은행파크 개장으로 대구FC를 위한 환경이 만들어져 행복합니다.



이원재 엔젤, 우순월 님

지난 3월 전용구장 홈경기 개막 때 프리포즈해서 결혼 2개월 차인 신혼부부입니다. 대구FC 팬이라 경기장 데이트를 많이 했는데, 개막 첫 경기 때 새 구장에서 프리포즈를 받아 너무 의미 있고 행복했습니다. 당시 주변 엔젤 분들이 깃발도 흔들어주시고 응원해주신 덕분에 잊지 못할 하루였어요. 앞으로 부부 엔젤로 대구FC를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허정무 부총재

대구시민들의 모범적인 응원 문화 덕분에 대구가 축구 메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프로축구 붐 조성에 엔젤클럽이 큰 역할을 하고 있어 큰 고마움을 느낍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차원에서도 프로축구단에 대구FC의 상승요인 등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축구문화 정착과 저변 확대에 일조하겠습니다. 대구FC와 엔젤클럽, 최고입니다!



차현민, 안주용 님(동구 상매동)

저희는 회사 동료인데, 퇴근 후 함께 축구 경기 보러 오는 게 활력소예요. DGB대구은행파크는 오히려 아담하기에 단합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올 시즌 대구FC 성적이 좋아 덩달아 기분이 좋아요. 기세를 몰아 정점을 찍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맨체스터에 맨체스터시티가 있듯 대구에는 대구FC가 있죠. 시민으로서 응원합니다! 파이팅!



김양숙 엔젤

새 전용구장 DGB대구은행파크 현장에 와서 직접 보니 경기가 너무 박진감 있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선수들과 함께 호흡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최고예요. 축구 물을 잘 알지 못해도 경기장 덕분에 충분히 경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이곳에 와서 축구경기를 보면 축구팬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박혜영 엔젤

지난해 포항전 원정을 갔는데, 생동감 있게 경기를 즐길 수 있는 축구전용구장의 환경이 너무 부러웠어요. 이제 대구FC를 위한 멋진 홈구장도 현실로 이루어져서 경기 날이 기다려집니다. 새 전용구장에서 경기를 가까이 보니까 '축구는 전쟁'이라는 말이 실감나네요. 경기 내내 잠시도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축구의 매력에 푹 빠져있어요.



송춘희 엔젤

전용구장이 생겼다는 자체만으로도 대구FC 선수들의 에너지가 올라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직관하면서 그런 선수들로부터 팬들도 에너지를 많이 얻습니다. 스포츠를 통해 에너지가 오고 가는 곳, DGB대구은행파크는 대구시민이 결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정하니, 김민서 님

저희 가족은 전용구장이 생기기 전부터 대구FC를 10년 이상 좋아하고 있는 오랜 팬이에요. 경기가 있을 때마다 응원하러 오는데 지금처럼 구장이 꼭 찰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이 지속되었으면 좋겠어요. 경기력에 관계없이 대구FC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전용구장을 옮기고 나니 훨씬 접근성도 좋고 주변 상가도 많은 데다가 사람도 붐비는 곳이라 경기를 더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장하연(북구 칠성동), 현예진(북구 침산동) 님

월드컵 때 축구에 흥미가 생겨 대구에도 구단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 후로 꾸준히 대구FC를 응원하고 있어요. 전용구장 관중석이 선수들과 가깝기도 하고, 발 구르는 재미 때문에 응원이 더욱 신나는 것 같아요. 선수들 부상 조심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경기 뛰어드세요! 사랑해요♡



매표소

엔젤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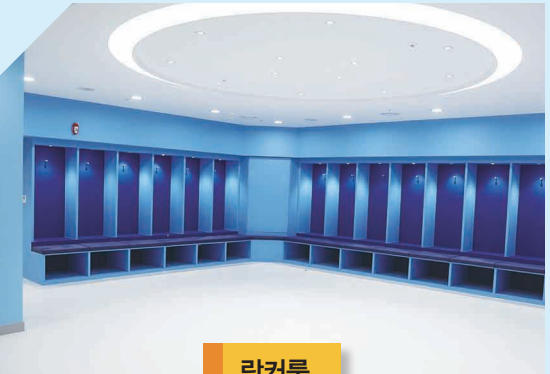
빅토야 나랑
DGB대구은행파크
둘러보자~~



야간 전경



엔젤룸(대회의실)



락커룸



대구FC 역사관

ANGEL WITH US

축구는 대구다, 대구는 엔젤이다





1

대구브랜드 1507, 대구사랑 실천
양말왕 박진현 다이아몬드 엔젤(주)홀삭스 대표)

대구양말 지킴이, 대구축구 지킴이로 변신!

“땀범벅인 날이든 눈물바람인 날이든, 웃음이 넘치는 날이든 자괴감에 몸부림치는 날이든, 아무 것도 하기 싫은 날이든 할 일이 산더미같이 쌓인 날이든, 어쨌든 양말을 신으며 하루는 시작되고 양말을 벗어던지면 어떻게든 마무리된다.”

—〈아무튼 양말〉(구달 지음/제철소/2018)의 출판사 서평 중에서—

- 1 양말왕의 양말왕국
- 2 엔젤클럽 가입 기념 촬영
- 3 하루 판매량 2,000건 돌파를 기뻐하는 모습

‘양말’이라고 하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누구나 양말을 신고 하루를 시작하고 양말을 벗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한다. 단순한 것 같지만, 엄연한 사실이다. 이 평범한 진리를 가슴에 품고, ‘대구양말 지킴이’로 나선 청년기업가가 있다. 얼마 전 자발적으로 다이아몬드 엔젤을 선언한 박진현 (주)홀삭스 대표(36)다. 그는 양말에 ‘대구의 문화’를 넘어 ‘대구’ 자체를 담은 ‘대구 사랑꾼’이다. 이번에 엔젤의 일원으로 대구사랑에 본격 나선 것도 그와 같은 맥락이다. 엔젤클럽이 축구를 통해 대구사랑을 실천하듯, 박 대표는 양말을 통해 대구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대구의 양말 생산 인프라와 기술력이 엄청나다.”는 그는 이러한 대구양말의 힘을 세상에 알리겠다며 오늘도 동문서주하고 있다. 신규 물량 확보로 더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양말왕국’(주)홀삭스로 양말왕을 찾아 나섰다.

누구나 신는 양말, 아무나 만들 수 없는 대구양말!

마침 비가 그친 뒤 눈부신 6월이 다가오고 있었다. 수성구 무학로 주택가에 위치한 ‘양말왕국’은 담쟁이들이 초여름 바람에 나풀뒀다. 박 대표는 야구모자에 먼 티셔츠, 반바지를 입은 채로 직접 내린 커피를 내어 왔다. 옷차림처럼 그는 편하고 자유로웠다. 알고 보니 사무실 자리도 한때 카페를 하던 곳이란다.

“양말이 좀 잘 된다 싶으니, 한눈을 팔게 되더라고요. 이 자리에 카페를 열고 양말 아닌 외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6개월 만에 접었습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대신 이 자리에서 양말을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인생사업이 된 것이지요.” 그리스인 조르바처럼 그는 엄매이기를 싫어했다. 학창시절도 그저 그랬다. 그렇게 20대는 방황했다. 그러다 마음을 잡은 것이 바로 ‘양말’이다.

“누구나 양말을 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하필 양말이냐?”라고 물으면 그의 답은 늘 짧고 확실했다. 하찮은 것 같지만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양말’. 이것만큼 명쾌한 이유가 있을까. 즐거운 그 어느 날 아침에, 그리고 몸이 무거운 날, 무언인가 중요한 일전을 치르는 날, 반가운 사람을 만나는 날에도 우리는 늘 양말을 신는다. 누구나 양말을 신고, 어디로든 자유롭게 걸어가는 것을 상상하면 그는 행복해진다. 그게 자신이 만든 양말이면 더할 나위 없다. 그게 젊은 양말왕의 꿈이기도 하다.

양말과의 인연은 아버지로부터 시작했다. 8년 전, 20대 후반이 었지만, 그는 여전히 자리 잡지 못하고 삶의 변두리에 있었다. 결국, 아버지가 하고 있던 양말 사업에 뛰어들었다. 양말을 하는 아버지조차도 “되겠나?”고 했지만, 그는 이상하리만큼 “된다! 된다!”고 했다. “큰 사고를 친 건 아니었지만, 부모님께 신뢰감을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제가 ‘된다’고 하니 처음에는

쉽게 믿지 않으셨죠. 그럴수록 저는 더 확신을 갖고 일에 매달렸습니다. 지금은 아버지가 저의 든든한 지원군이자 스승님이 되셨습니다.”

박 대표는 더욱이 고향 대구가 양말 생산의 최적지라는 점을 알게 되면서, 그 확신은 더 공고해졌다. “많은 사람들이 양말이라고 하면 모두 ‘사양산업’이라며 부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일하면 할수록 대구의 양말 생산 인프라에 놀랐습니다. 서울, 경기도 등에서는 양말 생산을 위해 부자재를 구하러 적어도 30분에서 40분, 때에 따라서는 1시간 넘게 움직여야 하지만, 대구는 가까우면 5분, 10분이면 가능합니다.”

문제는 브랜드였다. 박 대표 역시 해외 유명브랜드의 라이선스를 받기 위해 서울 등을 다니며 노력했지만, 문전박대 받기 일쑤였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이 지금의 그를 있게 했다. 자신의 고유 브랜드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는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 하청이 아닌 자신만의 브랜드 개발이었다.



스토리가 있는 대구브랜드 ‘1507 일오공칠’

요즘 대구에서 가장 핫한 곳 중 하나가 축구전용구장 DGB대구은행파크(일명 대팍)다. 관중석은 가득 차고, 대구FC 선수들의 열정적인 플레이에 모두 환호한다. 서울 등 타 도시에서 찾아올 정도다. 그 ‘대팍’ 전광판에 ‘1507’이 떴다. 다이아몬드 엔젤을 알리는 전광판 홍보다. 젊은 관중들 사이에서 “어! 저 브랜드 나도 안다.”라는 말이 터졌다. 바로 (주)홀삭스의 대표 브랜드다. 대구보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더 잘 알려졌다. 젊은 층이 선호하는 편집숍이나, 굵직굵직한 온라인 편집숍을 거래처로 하고 있을 정도로 이름값을 높였다.

‘1507’이라는 브랜드는 박 대표에게 애뜻하다. 20대의 방향을 끝내고 새로운 삶을 위해 출발한 장소,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 1507-42번지’를 모티브로 했기 때문이다. 당시만 하더라도 아버지가 혼자 양말 생산하며 살고 있던 곳이다. 그곳에서 그는 양말의 꿈을 키웠다. 처음에는 녹록하지 않았지만, 이번만큼은 꼭심 있게 밀어붙였다. 그래서 ‘1507’은 특별하다. 박 대표 자신이 그곳에서 양말로 다시 출발했듯이, 모든 사람들이 ‘1507’이라는 양말을 신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한다는 의미가 중의적으로 담겨있다. ‘1507’은 또 다른 신뢰의 숫자이기도 하다. 박 대표는 자신이 생산한 양말의 품질을 신뢰한다. 그래서 소비자가 양말을 신다가 구멍이 났을 때 무상으로 교환해 준다. ‘수명 보증제’다. 실제 교환율은 0.1%라고 한다. 그 정도로 양말의 품질이 우수하다는 증거이다.

실제로 그는 좋은 실과 면을 고집한다. 양말 본질에 충실하자는 것이다. 여러 기능성을 갖춘 현란한 양말보다도 쉽게 신을 수 있고, 신을 때 기분 좋은 양말이 ‘최고의 양말’이라는 뜻이다. 누구에게나 잘 어울리고 어떤 옷에도 신을 수 있는 그런 양말, 그런 철학을 고집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100%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1507’ 제품에 대한 후기 댓글은 칭찬 일색이라한다. 일본 유명 브랜드 U사와 비교되고 있는데, 늘어나서 쉽게 흘러내리지 않는 것도 특징이다. 1507 브랜드의 또 다른 특성은 받을 때 행복한 양말이라는 점이다. 그는 이를 위해 브랜드를 디자인하고, 포장에도 각별히 신경 쓴다. 이런 노력들이 오늘의 1507을 만들었다.

100% 대구 부자재, 대구읍성 양말! 대구 도심을 거닐다

1507 브랜드의 핵심 콘셉트는 ‘대구’다. ‘대구’는 생태적으로 그의 고향이기도 했지만, 산업적 측면에서 양말 생산의 보고였다. 일본산 유명 브랜드 U의 내수 주문이 대구로 올 정도다. 그는 양말을 하면서 대구의 양말 부자재왕들을 만났다. 모두들 기술력이 뛰어난 숨은 일꾼이었다. 잠시 돌아서면 가까이에서 양말 부자재를 쉽게 구할 수 있었고, 후가공도 가능했다. 적어도 양말



분야에서 대구가 자랑스러웠다. 때에 따라서는 가격이 더 비싸더라도 대구산을 고집한다. 그런 자부심을 바탕으로 탄생한 것이 바로 ‘대구읍성 양말’이다. 이 양말은 한마디로 ‘지금도 사라진 옛 대구읍성을 기억하자는 취지로 만든 문화양말’이다. 총 4컬레로 대구 동성로, 남성로, 서성로, 북성로를 모티브로 했는데 대구의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대구경북디자인센터 개발 프로젝트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그는 이 양말이 대구문화를 상징하는 만큼, 모든 부자재를 철저히 대구 업체에서 구했다. 그래서 읍성양말 포장에 그의 협력업체들이 모두 나와 있다.

‘홀삭스의 제품은 전량 대한민국 대구에서 제작·생산하므로 정당한 인건비와 노동환경을 보장하면서 생산됩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박스, 인쇄, 원단, 제단 업체 이름과 주소까지 당당히 표시해 놓고 있다. 100% 대구재료에 100% 대구사람이 만든 제품이다. 이것보다 더 브랜드 콘셉트가 강한 것이 있을까? 이러한 그의 대구사랑은 결국 대구FC를 후원하는 엔젤클럽으로 이어졌다.

대구에서 받은 것 환원키 위해 다이아몬드 엔젤 가입

조만간 엔젤 브랜드로 대구사랑 양말 생산 예정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면 주위를 둘러보게 되어있다. 홀삭스 박진현 대표도 최근 매출이 늘어나고 사업이 안정되면서 ‘대구’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러다 우연히 대구FC를 알게 됐다. “처음에는 대구FC가 시민구단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민이 주인인 시민구단이라는 취지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제 뜻과 맞닿아 있는 곳이 바로 엔젤클럽이었습니다.”

박 대표는 실제로 직접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고, 엔젤클럽 사무국으로 전화를 했다. 엔젤클럽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는 대구에서 많은 것을 얻은 만큼, 대구를 위해 뭔가를 기여하고 싶다는 선뜻 다이아몬드 엔젤에 가입했다. 평소 이웃돕기에도 적극적인 박 대표. 이번에는 ‘시민구단 후원을 통해 대구를 사랑하자’는 엔젤의 슬로건이 마음에 들었다.

엔젤클럽 가입 후 그는 곧바로 대팍으로 출정했다. 지난 4월 20일 포항과의 경기였다. 마침 인천의 거래처 관계자가 인천유나이티드 팬이어서 함께 경기장을 찾은 것이다. 그는 대팍의 열기에 취했고, 거래처 관계자도 대팍의 열정과 분위기에 놀랐다고 한다. 거기다 직원들까지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 대구FC 홈경기가 열리면 언제나 홀삭스 식구들을 만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대구FC와 엔젤클럽, 그리고 1507 브랜드는 닮았다. 모두 토종 대구 브랜드라는 점이다. 대구FC의 경우는 대구시민들이 만든 국내 최초의 시민구단을 상징한다. 엔젤클럽은 대구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유례없는 대구시민의 후원 모임이라는 콘셉트를 갖고

있다. 그리고 1507은 100% 대구 생산 인프라에서 만든 대구 제품이라는 점이 그렇다. 어찌 보면 박 대표의 엔젤 입성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엔젤클럽 가입 후 단톡방을 보고 엔젤들의 열정에 놀랐다”는 그는 “최근 대구FC가 좋은 성적을 내고 대구에 축구 붐이 일면서 나도 여기에 기여하고 있는 것 같아 자부심을 느낀다.”며 “앞으로 대구FC엔젤클럽을 모티브로 한 양말도 생산해보고 싶다.”고 또 다른 대구사랑의 꿈을 밝혔다.

양말왕 박진현 대표! 딸에게 전수, 3대 걸친 ‘양말왕국’ 꿈꿔

대구와 양말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그이기에 아버지로부터 이어 받은 것을 늘 자랑으로 여긴다. 한마디로 ‘가업家業’이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브랜드로 만들어진 양말을 신고, 하루를 출발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을 상상만 해도 즐겁다. 그래서 자유로운 영혼인 그는 가끔 양말 터미에 누워 양말과 교감하기도 한다. 그 순간이 그에게는 참 행복한 시간이다. 한 때 카페를 하며 한눈을 팔기도 했지만 그 때문에 그는 더욱 양말사랑이 깊어졌다. 앞으로도 모자 등 잡화에 눈 돌리지 않고 ‘Only 양말’에 주력하겠다는 생각이다.

“양말에 올인하면서 지난날의 방황도 모두 값진 경험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아이템을 기획하면서 그때 느꼈던 경험들을 접목하면 항상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생각만 바꾸면 세상에 쓸모없는 경험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오더 파기에 오늘도 바쁘다. 거기에는 대구양말을 지키겠다는 사명감도 크다. 자신이 오더를 수주하면 그만큼 자신과 함께 하는 대구의 협력업체들도 함께 커가기 때문이다.

“확신을 갖고 도전하면 안될 게 없다.”는 그는 요즘에는 납품 기준이 까다롭기로 소문난 국내 최대 규모의 골프장에 양말을 공급하고 있으며 내로라하는 국내 엔터테인먼트회사와도 거래를 하고 있다. 아울러 이제 대구에서도 대외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이유는 ‘너무나 좋은 양말, 거기애다 너무나 좋은 대구양말 인프라’를 알리고 지키고 싶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양말을 물려받았 듯이 이 행복을 두 딸에게도 물려주고 싶어 한다.

“정말 저는 양말왕이 되고 싶습니다”는 박 대표는 “우리 딸에게도 양말을 하게 해서 대를 이어 대구양말을 지키는 양말왕국을 만드는 게 꿈입니다.”며 오늘도 씬 없이 양말을 신고 달린다.👣



- 1 숨은 양말왕 찾기
- 2 러닝을 통해 기부를 실천하는 대구의 러닝크루 'UCON'에게 양말과 장소를 후원한 박진현 대표. 1507은 의미 있는 실천을 응원한다.
- 3 대구의 아티스트들에게 공연과 파티 장소를 후원한 1507.

이지컴퍼니(주) 대표 조승우 엔젤 대구FC 홈 개막전! 그는 진정한 엔젤이 되었다



성과와 실패의 롤러코스트에서 미래 꿈꿔

“푸른 함성이 가득한 경기장에서 아내가 웃고 있었 습니다. 그 미소는 슬로우 장면처럼 흘렀습니다. 얼마 만에 보는 웃음이었는지... 순간! 저는 그동안 그 림자처럼 따라 붙었던 ‘일들’을 잊어버렸습니다. 이 게 행복이구나! 그리고 진짜 엔젤이 되었습니다.”

누구든 ‘진실의 순간’이 있다. 조승우 엔젤은 지난 3 월 DGB대구은행파크에서 그 순간을 만났다. 오랫동안 자신을 지켜준 아내의 해맑은 미소는 경기장 의 환호와 섞이며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했다. 그 역시 응원하다 말고 아내를, 그리고 함께 온 가족을 한참이나 응시했다. 그리고 스스로 읊조렸다. “감사 합니다.” 그 하나면 충분했다. ‘감사’라는 단어의 울 림은 그렇게 크고 깊었다.

하얀 얼굴에 고생 한 번 안했을 것 같은 조승우 엔 젬은 3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몇 권의 책을 쓸 정도로 캐널 이야기가 많았다. 고려대를 다니다 중퇴한 그는 중국 북경대에서 경제·무역학과 중문 학을 전공했다. 하지만 만만찮았다. 부유했던 집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그는 낯선 땅에서 죽을 만큼 고생하며 학업을 이어갔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조기 졸업을 할 만큼 학업에도 열중했다. 그 덕에 귀국 후 잘 나가는 금융맨이 되었으나, 그게 독이었 다. 20대 후반, 남들보다 앞선 성공으로 많은 이들 의 부러움을 샀지만 정작 이룬 것은 없었다. 건방진 자만감으로 쌓아올린 공든 탑은 흔적도 없이 순식

간에 무너졌고, 견잡을 수 없는 깊은 나락으로 떨어 졌다. 하지만, 우연찮은 인연으로 국내 굴지의 대기 업에서 해외 투자 사업과 마케팅 분야 일을 하게 되 었다. 능력도 인정받았고, 안정도 찾아갈 무렵,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왔다. 과거에 빠른 성공의 궤도 에 오르고 싶었던 욕심이 화를 불렀다. 그의 견고하 지 못했던 모래성은 또 다시 무너졌다. 그는 견딜 수 없었고, 죽음까지 결심했다. 삶의 끝자락에서 그 를 붙든 건 아내였다. 치진 어깨를 하고 돌아온 그 를 맞이했던 것은 아내의 깊디깊은 잠이었다. ‘어떻 게 그렇게 깊이 잠들 수 있나?’ 수많은 고민으로 불 면의 밤을 보낸 그는 아내의 담담함에 놀랐다. 더군 다나 잠에서 깬 아내가 던진 한 마디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우린 아직 젊잖아...”

다음날, 번역부터 시작해서 택배 물류 상하차, 우유 배달까지 가리지 않고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내달 렸다. 바닥까지 가 본 터라 두려울 게 없었다. 번듯 한 곳이 아니라도 좋았다. 그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 면 마다할 수 없었다. 마음 자세가 달랐다. 새벽 배 달 때의 열정으로 그는 30대 초반을 치열하게 살았 다. 치열함은 새로운 문을 열었다. 지구 반대편 미 국에서 그를 불렀다. 뉴욕의 재미교포가 운영하는 중견 기업이었다. 그렇게 가족과 생이별하고 뉴욕 에서 버텼다. Google, Facebook 등 세계적인 기업 이 그의 품으로 들어왔다.

● 2019 대구FC 홈개막전에서 가족과 함께(위)

나의 힘은 가족, 디지털마케팅 전문가로 재도전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여전히 진행형이다. 새로운 도전은 다분히 감상적이다. '가족'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그리움이었다. 성공도 좋고, 돈도 돈이지만, 힘들 때 그를 버티게 한 것은 가족이었다. 마침, 몸담고 있던 미국 회사에서 한국 지사 발령이 나자 그는 미련 없이 귀국했다.

국내에 들어오자 다시금 전투력이 살아났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그의 무기가 됐다. 이제 자신의 꿈을 가족과 함께 펼칠 때가 온 것이다. 그렇게 시작된 꿈이 지금은 탄탄한 빅데이터 분석, 디지털마케팅 전문 회사로 현실화됐다. 그가 이끄는 이지컴퍼니 주식회사(EZ COMPANY)는 지나온 그의 삶의 질량과 같다. 금융맨으로, 데이터 분석가로, 마케팅 전문가로, 그리고 콘텐츠 개발자로 경험한 그의 노하우가 회사 곳곳에 그대로 녹아있다. 여기에 수많은 역경과 바닥부터 쌓았던 경험들이 날 것 그대로 살아있다.

빅데이터 분석, 경영컨설팅 및 온·오프라인 마케팅으로 사업을 시작해 그는 현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디지털마케팅과 혁신경영 프로젝트 및 솔루션 제공, 토달부터 커뮤니티 운영, 앱 개발, 뷰티 전문 쇼핑몰, 소상공인 성공지원사업, 외식 경영 등으로 사업을 확장 운영하고 있다.

디지털마케팅으로 엔젤 홍보 확대 주력

숨 가쁘게 달려온 그의 삶을 요약하기는 쉽지 않았다. 밝은 얼굴에 모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그의 얼굴 역시 사뭇 상기되어 있었다.

“어린 나이에 여러 번의 큰 어려움과 실패가 결국 지금의 저를 만들고,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주저앉아야 비로소 주을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업이 자리 잡자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었다. 마침 친분이 있던 임익기 엔젤((주)브라이트 대표)로부터 엔젤클럽 이야기를 들었다. 두말하지 않고 엔젤에 가입했다. 좋은 사람들이 많았고, 그 뜻도 의미 있었기 때문이었다. 엔젤클럽에서도 그는 가만 있지 않았다. 특히, SNS콘텐츠와 홍보 분야가 취약한 것을 확인하고,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하고 있다.

“제가 항상 다짐하고, 가슴에 새겨두고 있는 말 중에 ‘하고자 하면 방법을 찾을 수 있고, 하지 않으려고 하면 핑계만 찾게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엔젤클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SNS영역은 젊은 세대 위주라 활용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에 갖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자 하면 반드시 SNS 채널들을 통해 엔젤, 엔시오를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남들이 주저할 때 일단 도전해보고 결과를 낸다. 그것이 지금까지 그를 이끌어온 힘이었다. 이번에 그는 카카오톡 단체 카톡방과 네이버 밴드에 그치던 엔젤 홍보 활동을 카카오픈채팅,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모바일 배너 광고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엔젤의 의미와 정신이 담긴 그의 콘텐츠는 벌써부터 수많은 네티즌들에게 퍼져가고 있다. 또 다른 엔젤 세상이 기대된다.

키덜트(Kidult), 엔젤다운 순수함으로 살아가는 법

사업하라, 엔젤 활동하라 일초가 아까운 조승우 엔젤. 하지만, 그에게도 외로운 시간이 있다. 여느 CEO처럼 리더의 외로움은 그들의 몫이다. 모두들 나름대로 외로움을 즐기는 법이 있다. 조승우 엔젤 역시 마찬가지다. 직원들이 빠져나간 사무실. 라운지에는 그가 모은 피규어(Figure)들이 가득하다. 드래곤볼에서부터 어벤저스의 아이언맨, 스타워즈의 다스베이더 그리고 광선검까지... 외로운 시간이면 이들이 그의 벗이다. 우연한 기회로 한국의 피규어 대통령 조웅 대표(CW레스토랑&갤러리)와 친분을 맺으면서 그도 피규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냥 장난감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피규어들이 달리 보였다. 마치 만화와 영화 속에서 방금 나온 것 같은 퀄리티에 그는 빠져들고 말았다.

“피규어가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추억과 위안을 주듯 축구 역시 대구시민은 물론, 보다 많은 사람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었으면 합니다.”

뜨겁게 살아온 기업가 조승우 엔젤. 하지만, 그는 아이 같은 순수함을 지닌 영원한 키덜트(Kid와 Adult의 합성어)족이다. 그의 순수함이 엔젤을 더 엔젤답게 한다. 그는 영원한 엔젤이다. **49**

● 사무실 직원과 함께 디지털마케팅으로 엔젤 홍보 확대 방안을 검토하는 조승우 엔젤(위) 사무실에 가득한 피규어 친구들(아래)





호텔인터불고 대구 야간총지배인 **한종건 엔젤**
나의 자랑 엔젤 배지를 마음에 품고

1 러시아월드컵을 앞두고 호텔에 합숙한 손흥민 선수와 함께
2 기성용 선수, 한종건 엔젤, 이승우 선수, 신태용 감독(왼쪽부터)



호텔 로비서 번개가입식, 회장 직접 배지 달아줘

지난 1월 10일, 한종건 호텔인터불고 대구 야간총지배인은 번개 가입식을 가졌다. 장소도 뜻밖이다. 호텔 로비다. 지금까지 온갖 엔젤 가입식이 있었지만, ‘로비 가입식’은 처음이다. 사연은 이렇다. 한종건 총지배인은 3층 로비를 돌며 업무 점검 중이었다. 마침 호텔 2층 레디스홀에서는 새해를 맞아 대구FC엔젤클럽의 신년교례회가 열렸다. 150여 명 이상의 엔젤이 몰려 지난해 FA컵 우승을 축하하고 새해에도 ‘으샤으샤’한 번 해서 올해는 대구FC가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자며 의기투합한 자리였다.

한종건 총지배인은 행사를 마치고 로비로 올라오던 엔젤클럽 이호경 회장과 마주쳤다. 1년 전 일이 생각났다. 1년 전 평소 친분이 있던 이호경 회장이 자신에게 “총지배인님도 엔젤에 가입하셔야죠.”라고 물었던 것이다. 스쳐 지난 듯 했지만, 한 총지배인은 그날 이호경 회장의 그 말을 잊지 않았다. 책임감처럼 가슴에 새겨두고 있었다. 마침 이호경 회장 일행을 보자 이번에는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호경 회장에게 직접 물었다. “저는 언제 엔젤한다고 말씀드려야 하나요?”

이호경 회장은 그제서야 그때가 생각났다. 아차 싶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옷에 달고 있던 엔젤 배지를 빼서 직접 옷깃에 꽂아줬다. 물론 훗날 엔젤 가입식을 공식적으로 했지만, 배지를 받은 그날이 진정한 엔젤 가입식이라고 해도 좋았다. 그만큼 의미가 있는 날이었다. 그 이야기는 엔젤클럽 단체 카톡방에 올라 두고두고 화제가 됐다.

- 1 대구FC엔젤클럽 이호경 회장으로부터 배지를 받고 있는 한종건 엔젤
- 2 조현우 선수와 함께
- 3 대구 최초 5성급 호텔을 기념하며



오랜 세월을 타지에서 생활하고 돌아온 만큼 고향인 대구를 위하여 뭔가 하고 싶었다.

어릴 때 선수 꿈 접어, 엔젤로 축구사랑 대신

한종건 야간충지배인은 실제로 축구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다. 대구 축구명문 반야월국민학교(현재 초등학교)의 창단 멤버였다고 한다. 그의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축구팀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고, 공식적으로는 1년 뒤인 5학년 때 창단되었다고 하니 반야월 축구의 산 역사가 다름없다. 아쉬운 것은 그렇게 하고 싶었던 축구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당시만 하더라도 부모님들은 학업을 강조했다. 어쩔 수 없이 중학교를 진학하면서 축구선수의 꿈을 접었다. 그는 아직도 그때 친구들과 함께 불렀던 노래를 읊조린다. “차라차라! 차범근, 달려라! 이회택, 높이 뛴다! 김재한- 헤딩 슛 골인!”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비행기(윤석중 작사, 외국곡)’라는 동요를 개사한 이 노래를 부르면, 지금도 문득 그때가 그리다. 함께 흥먼지 날리며 공을 찼던 친구들이 생각나고, 마음껏 내달렸던 운동장이 떠오른다. 축구선수로 뛰지는 못했지만, 그는 축구를 버리지 못했다. 대학 다니면서 단대축구부로 활동했고, 군대에서도 그는 늘 대표선수였다. 이제 부모가 된 그는 그때의 부모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축구에 대한 갈증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기축구회에 나가서 진한 땀을 흘렸다. 하지만 야간충지배인을 맡고서부터 이마저도 쉽지 않다. 야간충지배인으로 그는 누구보다 부지런하다. 축구를 사랑한 만큼, 자신의 일도 사랑한다. 야간에도 호텔을 꼼꼼히 둘러보고 챙기느라 조기 축구회에 나갈 여력이 없다. 그럴 때면 호텔로 합숙 들어오는 축구선수들과 관계자들이 반가웠다. 월드컵을 전후해서는 국가대표와 코칭스태프가 호텔을 찾았다. 그는 손흥민, 조현우 선수, 그리고 신태용 당시 월드컵대표 감독과도 기념 촬영을 하며 축구에 대한 아쉬움을 달랬다. 월드컵이 아니어도 그는 선수들과 자주 접한다. 바로 대구FC 선수들이 홈경기 전에 호텔로 합숙을 들어오기 때문이다. ‘축구선수’가 꿈이었던 그로서는 애정이 갈 수밖에 없다. 자신의 분신인 듯 그들의 성공을 바란다. 그런 점에서 그의 축구사랑이 다시 꽃핀 곳이 바로 엔젤클럽이다.

군 생활 31년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한종건 총지배인. 이제 그는 남은 삶을 엔젤클럽을 통해 축구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대구사랑을 실천한다는 계획이다. 그래서 엔젤과 인연을 맺은 것이 반갑다. 그날 이호경 회장이 달아주었던 엔젤 배지를 늘 기억하고 자랑스럽게 달고 다닌다.

“오랜 세월을 타지에서 생활하고 돌아온 만큼 고향인 대구를 위하여 뭔가 하고 싶었다”는 그는 “엔젤클럽과 인연을 맺은 만큼 축구사랑을 통해 대구사랑을 실천하고, 반야월초등학교 출신을 비롯해 더 많은 사람들이 엔젤클럽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⁴⁾



대구FC의 허리, 츠바사翼

날개를 펴고 비상하자!

대구FC 최초의 일본인 선수이자 특유의 정확한 패싱력으로 대구FC의 허리 역할을 해내고 있는 미드필더 니시 츠바사 선수. 올 초 대구와 재계약을 맺고 앞으로 대구FC 중원의 핵심으로 팀의 주축을 이끌어갈 츠바사 선수를 엔젤들이 만났다.

통역. 우현욱(대구FC서포터즈 그룹), 이상기 엔시오 | 정리. 박다은(멀티에드) | 사진. 하제연 홍보이사, 대구FC



엔젤클럽 회원들이 츠바사 선수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중학생 전국대회 우승, 전국 고교 선수권, 대학 관동리그 4년 연속 우승 등 학창시절 유망주였어요.

고향인 구마모토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초등학교 때 사촌 형이 축구를 하는 걸 보고 나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축구를 시작했고, 학교에서 쪽 축구부 생활을 했어요. 도쿄에 가면 더 발전이 있겠다 싶어 도쿄에 있는 센슈대학에 갔습니다. 프로 생활은 대학 졸업하고 2013년부터 시작했어요. 유럽에 가보지 않겠냐는 제안이 있어 J리그가 아닌 폴란드 리그에서 5년 정도, 슬로바키아 리그에서 반년을 보냈습니다.

유럽 무대에서 한국으로 오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대구FC 입단을 결정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슬로바키아 리그에 있을 때 대구FC 성호상 전력강화부장님이 직접 찾아와 입단을 제안했어요. 폴란드에 남는다는 선택지도 있었는데, K리그 레벨이 높다는 걸 알고 있기도 했고 한국 리그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입단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여름에 처음 대구에 왔어요. 타지에서 적응은 힘들지 않았나요.

좋은 분위기로 가득한 올해와 비교하면, 지난해 전반기 입단 당시에는 팀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해외 생활을 오래하기도 했고, 대구FC 팀메이트들이 너무나도 친절하게 대해줘서 빨리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한국 드라마나 K-pop을 좋아해서 한국 문화를 자주 접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연습시합이 있어서 부산에 가본 적은 있는데, 대구라는 도시는 잘 몰랐어요. 하지만 한국 음식을 좋아했기 때문에 기대를 안고 왔습니다. 매운 음식은 잘 못 먹지만 한국 요리가 입에 잘 맞아요. 그 중에서도 삼계탕을 좋아합니다. 특히 선수들이 항상 식사하는 대구 FC 클럽하우스 음식은 최고예요.

MF 44 니시 츠바사(西翼)

생년월일 1990. 4. 8 일본
신체 173cm / 66kg
주요경력
• 2018. 6~ 대구FC
• 2018. 1 MFK 젤린 미할로프체 (슬로바키아) 임대
• 2016. 7~2017 OKS 스토밀 올슈틴 (폴란드)

K리그1 성적 (2019. 5. 26. 기준)

경기	득점	도움	공격포인트	슈팅
13	1	1	2	8



선수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대부분의 선수들과 영어로 대화하고 있어요. 황순민, 한희훈 선수 등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선수들도 꽤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클럽하우스 룸메이트인 에드가 선수와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브라질 출신인 안드레 감독님과 커뮤니케이션도 에드가 선수가 영어 통역을 해주는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에드가 선수는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 킥력과 헤딩으로 볼을 따내는 능력이 뛰어나 배울 점이 있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츠바사 선수가 생각하는 대구FC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효율적으로 강한 수비를 해서 흥미로운 팀인 것 같습니다. 폴란드 팀하고 비교했을 때 거친 면모도 비슷해요. 특히, 젊은 선수들이 많아서 앞으로 가능성이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김대원, 정승원 선수는 활약이 뛰어나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선수들이에요.

양질의 패스, 경기 운영 능력 등 츠바사 선수에게 따라붙는 말들이에요.

자신의 강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패스’는 자신 있습니다. 터프한 유럽 리그와 비슷하게 K리그도 몸싸움이 거칠다고 느껴요. 폴란드에서 활동하지 않고 J리그에서 왔다면 거친 스타일이 익숙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6여 년간의 유럽 리그 경험 덕분에 단련이 된 것 같아요. 공격, 수비 모두 중요한 포지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징야, 에드가, 김대원 선수 등 공격수들이 앞에서 자유롭게 뛸 수 있도록 제 위치에서 좋은 패스로 공수의 균형을 맞추려고 합니다.

입단 후 많은 경기를 치렀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나요.

지난 4월 K리그1 포항전에서 첫 데뷔골을 넣었을 때 너무 기뻐했습니다. 팀메이트와 콤비네이션이 좋았던 골이었어요. 저 혼자만의 것이라기보다 팀원들과 함께 이룬 골이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공격진에 있는 선수들과 합을 잘 맞추려 하고 있어요. 지난 3월 아시아챔피언스리그(ACL) 뉘른겐전에서는 혼다 선수와 만났어요. 같은 시대에 혼다 선수와 그라운드에서 만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었고, 어릴 때부터 동경했던 선수와 함께 뛸 수 있어 기뻐했습니다. 또 유럽에서의 도전보다 더 높은 레벨인 아시아챔피언스리그(ACL)였기 때문에 동계훈련 기간 동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폴란드에도 엔젤클럽 같은 팬들이 있는지.

폴란드 서포터즈는 시합을 중간에 멈출 정도로 아주 뜨거운 팬들이었어요. 폴란드 팀이 시합에서 지는 날은 경기장 밖으로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언제나 반응이 터프했죠. 그에 비해 대구팬들은 한마디로 ‘상냥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수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있어요. 특히 엔젤클럽에 감사하고 있어요. 중국 전지훈련 때 엔젤클럽에서 응원 차 온 걸 봤는데, 먼 곳까지 와주셔서 힘이 났습니다.

‘캡틴 츠바사’라는 별명이 있어요.

축구 만화 <캡틴 츠바사>때문에 어느 나라를 가든 캡틴 츠바사라고 불려요. 제 이름의 ‘츠바사’는 ‘날개’라는 의미인데, 그 뜻처럼 높은 무대까지 차근차근 올라가고 싶습니다. 또, 등번호 44번이 이름 ‘니시’(2개의 4라는 말과 발음이 같음)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남아있는 선택지 중에 조광래 대표님의 추천으로 고른 숫자입니다.



축구 인생에 영향을 받은 선수가 있나요.

어릴 때 지단 선수가 롤모델이었어요. 지단 선수의 모든 것이 좋았죠. 또 일본의 나카무라 슌스케 선수는 경기를 보는 게 즐겁게 느껴질 정도로 플레이 스타일이 좋아서 축구를 하는 데 있어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경기가 많이 이어지는 시즌, 건강관리 루틴이 있다면.

요즘은 코치진이나 선수들 모두 체력적으로 힘든 시기예요. 저는 일단 평소에 식사를 잘 챙겨먹고, 폭 자려고 합니다. 몸이 긴장을 풀고 편안한 상태로 있도록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쉬는 날에는 평범하게 친구와 쇼핑을 하거나 맛있는 걸 먹으러 가요. 휴가가 2일 이상일 때는 일본에 가요. 대구에서 바로 가기도 쉽고요.

작년 대구스타디움에서와 올해 새 홈구장에서의 플레이, 선수로서 느끼는 다른 점이 있나요.

분위기 자체가 훨씬 뜨거워져서 느낌이 전혀 달라요. 그라운드와 관객석이 가까워 유럽 경기장 느낌이 많이 납니다. 팬분들과 거리가 가까워지니 경기하는 것 자체가 즐거워요. 그동안 유럽 리그에서는 크게 듣기 힘들었던 “츠바사! 츠바사!”하고 연호하는 소리가 잘 들려서 더욱 힘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에 축구란.

한마디로 ‘중심中心’이에요. 축구가 인생이고, 인생이 축구입니다. 엔젤클럽을 비롯해 대구FC의 수많은 팬들이 대구FC와 저를 서포트해주시는 덕분에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올 시즌 베스트11(일레븐) 안에 들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대구에서 최대한의 기량을 발휘하고 싶고, 앞으로 더욱 발전해나가는 선수가 되겠습니다.^[4]

Mini Interview | 츠바사 선수와 함께한 엔젤, 엔시오



최태원 엔젤

K리그에 진출한 몇 안 되는 일본 선수로 츠바사 선수가 책임감을 갖고 잘해주고 있어서 대구FC도 성적이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파이팅해서 대구FC가 상위 스플릿에 진출하고 아시아챔피언스리그(ACL)에 직행할 수 있도록 맹활약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박기원 엔젤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좋았고, 또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앞으로 대구FC가 좋은 성적을 내고 상위 스플릿에 남을 수 있도록 츠바사 선수가 더 활약해주길 바랍니다. 후배 선수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유석 엔젤

캡틴 츠바사! 별명처럼 츠바사 선수가 큰 역할을 해주고 있어 대구FC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대구FC의 비상과 함께 츠바사도 날아오릅시다! 츠바사 화이팅!!



이상기 엔시오

안드레 감독의 말처럼 대구FC 역사 중 가장 찬란한 한 해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츠바사 선수의 팬으로서 베스트 11(일레븐)이 되어 앞으로 더욱 찬란해질 미래로 함께 나아가고 싶은 바람입니다.

2019년 4월 10일~4월 11일 히로시마 뒸다, 엔젤원정대~!

정리. 정영준 엔젤, 손지훈 주임



ACL을 향하여 가슴 벅찬 히로시마 출정

4월 10일, 전날부터 내린 비가 그쳤다. 맑은 새벽공기에 상쾌한 아침을 맞았다. 오전 6시 20분 대구공항. 파란색 엔젤 재킷 차림을 한 12명의 엔젤원정대가 모였다. 아침식사를 하며 지난밤과 오늘 새벽에 있었던 축구이야기로 원정 분위기를 띄웠다. 전날 있었던 아시아챔피언스리그(ACL) 경남FC와 가시마 엔트러스의 경기는 어이없는 2대3 역전패였다. 하지만 오늘 새벽 유럽챔피언스리그(UEFA) 8강전은 대박이었다. 토트넘과 맨시티 경기에서 손흥민이 두 골을 몰아치며 4강 진출의 주역이 됐다.

서포터즈 니나노(니캉 나강 늬을 때까지 축구 보며 즐기자) 회원 3명을 만났다. 펠버튼전 TV중계에서 열심히 응원했던 분들이다. 5월 22일에 있을 광저우전에도 이미 차편 등을 준비해 둔 열렬 서포터즈들이었다. 축구이야기, 그리고 서포터즈들과의 대화로 출발 전 원정대 분위기도 한층 고조됐다. 때맞춰 주요 조찬 회의 중 시간을 내서 일부러 공항까지 나온 김종두 사무총장님의 배움을 받으며 승리를 다짐하는 출정식을 사진에

담았다. 8시 10분 대구발 오사가 간사이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가 날아오르자 가슴 벅찬 원정대의 첫걸음도 시작되었다. 출발에서부터 도착할 때까지의 여정을 시간단위로 정리해 본다.

엔젤원정대, 결전의 땅에서 필승을 결의하다

1시간 10분여 비행 끝에 비 내리는 간사이공항에 도착했다. 굳은 날씨였지만, 엔젤원정대의 기분은 맑았다. 승부도 승부지만 엔젤의 이름으로 원정대를 꾸려서 히로시마까지 왔다는 사실 자체로 큰 의미가 있었다. 11시 14분. 이번에는 열차였다. '아득히 먼'이라는 뜻의 하루카(はるか) 열차를 타고 신오사카역으로 이동했다. 파란색 엔젤 재킷 덕분에 많은 인파에도 엔젤원정대는 어디에서든 존재감이 드러났다. 신오사카역에서 낮 12시 25분 신칸센 고속열차를 갈아타고 적지 히로시마로 출발했다.

13시 50분 대구를 떠난지 6시간 만에 결전의 땅 히로시마에 도착하였다. 히로시마 엠블럼 속 결속을 상징하는 세 개의 화살을 부러 뜨리고 돌아갈 것이라는 다짐을 했다. 히로시마역 빌딩 내 도쿠가와식당에서 오키노미야키와 생맥주로 허기진 배를 달랜 뒤 저녁에 경기장에서 먹을 '벤토'를 샀다.

이틀간 머물 숙소인 히로시마역 앞 APA호텔로 가서 체크인을 한 뒤 간단히 여장을 풀고, 응원 도구를 챙겨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으로 향했다. 1945년 8월 6일 원자폭탄으로 폐허가 된 히로시마의 역사를 보며 전쟁의 참상을 느낄 수 있었다. 전쟁 당시 희생된 한국인을 기리는 한국인 위령비에서 당시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을 위한 묵념으로 평화공원 일정을 마무리하고, 산프레체히로시마 홈구장인 에디온스타디움으로 나섰다.

택시를 타고 30분 정도 지나서 에디온스타디움에 도착했다. 산자락에 있어 날씨가 매우 쌀쌀했다. 경기 전부터 히로시마 서포터즈들은 경기장 밖에서 열띤 응원을 펼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엔젤원정대가 먼저 히로시마 서포터즈에게 다가갔다. 대구와 히로시마가 자매도시인 걸 히로시마 팬들도 알고 있었다. 히로시마팬, 마스코트와 함께 페어플레이를 다짐하며 함께 기념 촬영을 하였다. 현지 방송인 히로시마 TV에서도 이 모습을 보고 카메라에 영상을 담았다.

히로시마팬들과 인사를 나누고 헤어질 때쯤 반가운 얼굴이 보였다. 조광래 대구FC 대표와 구단 직원들이 엔젤원정대의 소식을 듣고 마중을 나왔다. 타지에서 보니 더 반가울 수밖에 없었다. 조광래 사장님과 구단 직원들, 그리고 주변에 있던 대구 서포터즈들과 함께 필승 결의를 단체 사진으로 남겼다. 금강산도 식후경. 다소 추운 날씨에 야외에 설치된 간이 노점에서 한국식 육개장 국물과 낮에 샀던 도시락으로 배를 채웠다. 속을 든든히 했으니 모두 열렬히 응원할 준비가 되었다.



1 조광래 대구FC 대표와 단체 사진
2 간사이공항 도착
3 하루카열차를 타고 신오사카 역으로
4 히로시마 서포터즈, 마스코트와 기념 촬영





- 1 엔젤 응원석을 찾은 이상길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 2 이즈쿠시마 신사 방문
- 3 지나가던 히로시마 서포터즈와 함께
- 4 사자바위에서 단체 사진



100명의 응원단, 하나가 된 90분

경기장은 관중석과 그라운드 사이에 육상트랙이 있는 종합운동장 형태로 예전 대구시민운동장과 유사했다. DGB대구은행파크가 익숙해져 눈이 높아진 엔젤원정대는 멀리 떨어져 있는 필드를 보고 아쉬워했다. 추운 날씨와 경기장 위치, 교통편, 히로시마도야카프 야구 홈경기 등 여러 이유에서 관중은 2,500명 정도로 생각보다 많이 적었다.

승리를 잡으러 온 엔젤원정대의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엔젤 깃발을 펼치며 응원 준비를 모두 마쳤다. 원정 응원석에는 약 100명의 응원단(엔젤, 엔시오, 그라지예)이 그라지예 리드에 따라서 홈팬에 지지 않는 응원을 시작했다. 90분간 계속 서서, 뛰고 응원구호와 응원가를 부르며 엔젤클럽과 그라지예는 하나가 되었다. 김해에서 아들과 달려온 최호일 엔시오는 물론, 유모차에 아기를 태운 서포터즈 등 참 대단한 대구FC팬들을 만나볼 수 있었다. 세징야 선수의 아내이자 명예엔젤 아니엘리와 에드가의 부인도 원정석에 와서 함께 환호하고 아쉬움도 나누었다. 전반전은 0대2로 뒤진 채 마쳤다.

하프타임에 이상길 대구시 행정부시장과 히로시마시장, 히로시마 총영사 등 귀빈들이 대구FC 응원석을 방문했다. 이상길 부시장은 원정팬 한 분 한 분과 악수를 나누며 감사 인사를 전달했다. 더불어 원정석에서 10분간 팬들과 함께 박수를 치며 응원하고 돌아갔다. 히로시마 서포터즈와 관중들은 단합되고 열광적인 응원을 보였다. 충분히 박수받을 만했고, 대구도 서포터즈와 관중이 함께하는 응원에 좀더 고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진정한 스포츠 정신 보여준 엔젤원정대

후반 김대원과 에드가가 교체 투입되며 분위기가 다소 살아났



다. 전반에 비해 짜임새 있고 대구스타일도 살아났지만, 웬지 경기가 안 풀렸다. 히로시마는 우리를 잘 분석했고, 철저하게 준비한 것 같았다. 여기에다 잔디는 우리 선수들과 무엇인가 안 맞는 듯 계속 미끄러지고 볼 컨트롤도 평소와 달랐다. 결국 심판의 경기 종료 휘슬 소리가 들렸다. 아쉬운 0대2 패배에도 우리 응원단은 끝까지 우리 선수들을 격려했다. 다소 움츠린 모습으로 응원석 앞에 온 우리 선수들에게 모두 큰 박수와 함성으로 격려했다. 선수들도 응원단도 한마음으로 다음 경기 승리를 기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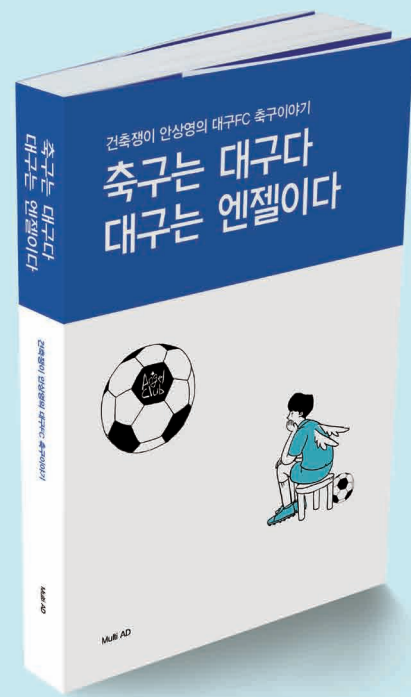
때마침 히로시마팬들에게 가기 위해 대구 응원석 앞을 지나서 히로시마 선수들에게도 큰 박수를 보내며 대구팬들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줬다. 히로시마 선수들도 일렐로 늘어서 대구 응원석에 머리 숙여 인사했다. 히로시마 TV에서도 이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진정한 스포츠정신과 응원정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엔젤원정대는 마지막으로 사용한 좌석을 깨끗하게 치우며, 아쉬움을 뒤로 한 채 경기장을 빠져 나왔다. 경기장 밖에서 조광래 대표와 구단 직원들과 서로를 격려하고 대구에서 다시 보자며 인사를 나눴다.

히로시마팬들과 함께 한 시간도 좋은 추억이었다. 파란색 엔젤 재킷을 보고 대구팬임을 아는 히로시마팬들과 함께 걸어 나오며, "대구 경기 때 3대1로 이겨주겠다"며 같이 웃고 떠들며 즐겼다. 또, 지나가던 젊은 히로시마팬에게 사진을 찍어달라 하였는데 자기가 웃옷을 벗고는 엔젤원정대 사이에 끼어서 같이 사진도 찍었다. 숙소로 가는 전철 안에서는 히로시마팬들과 한국드라마와 ACL축구이야기, 대박 경기장 소개 등 손짓 발짓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말은 잘 안 통하지만 서로가 표현하고자 하는 마음은 모두 읽을 수 있었다. 승패를 떠나 머물러를 교환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소통을 한다는 것이 너무 좋았다.

히로시마역 숙소 인근 이자카야에서 맛있는 요리와 일본 사케로 오늘 경기의 아쉬움 달래고, 다들 한마디 덕담과 건배를 하며 다음의 승리를 기원했다. 저녁은 강병규 부회장이 계산하시며, 들고 온 샴페인을 못 터트려 아쉬워하였다. 그렇게 첫날밤은 마무리가 되었다.

미야지마의 풍경 뒤로 하고 다시 대구로

둘째 날 아침이 밝았다. 호텔 조식을 먹으며 밤새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하루를 시작했다. 호텔 앞에 가이드 선생님과 엔젤원정대 모두 집결하여 미야지마로 떠날 준비를 했다. 전철을 타고 30분 이동하여, 미야지마 구치역에 내려 페리 선착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페리를 타고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하며, 미야지마에 도착했다. 히로시마 대표 관광지인 만큼 평일이지만 많은 인파가 있었다. 이즈쿠시마 신사 관람을 하던 중, 바다 위에 세워진 '토리이'(신사 입구에 세운 기둥 문)가 엔젤원정대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서로 사진을 찍어주며, 첫째 날보다 더 가까워진 엔젤원정대의 모습을 보니 흐뭇한 마음이 들었다. 케이블카를 타고 산 정상 사자바위 전망대에 도착했다. 원시림 같은 울창한 숲속에 수많은 고사목이 솟대같이 남아있는 수목림과 맑은 공기가 멋진 조합을 이루었다. 한국의 다도해같이 바다에 떠있는 작은 섬들이 평화롭게 보였다. 마음이 평온했다. 사자바위 위 아름다운 배경을 뒤에 두고 마지막 단체 사진을 찍은 후 히로시마역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라멘과 교자, 오니기리로 배고픔을 달래고, 간사이공항으로 출발했다. 수숙을 마치고 저녁식사는 회장님께서 사주신 맛있는 스시정식을 먹었다. 오후 8시 10분 대구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싣고, 야경을 보며 일본과 작별인사를 나누었다. 1시간이 조금 넘는 오후 9시 30분 대구공항에 도착하여, 서로 인사를 나누며 해단했다.4



건축쟁이 안상영의 대구FC 축구이야기
〈축구는 대구다 대구는 엔젤이다〉

활자들이 빚어 낸 대구FC엔젤클럽 기록의 역사

글, 김정미(멀티에드 대표)

텍스트 만지는 일을 오래하다 보면 오롯이 텍스트로만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 특히 호흡이 긴 문장은 글의 특성상 글쓴이의 캐릭터 내지 내면이 행간에 스며들기 마련이다. 기억을 더듬어 보건데, 그를 처음 만난 건 엔젤 상견례장에서가 아니라 모 일간지에 실렸던 칼럼을 통해서였다.

분명, 전문 글쟁이의 유려함은 아니지만 무심한 듯 툭툭 던지는 행간에서 매서움과 섬세함, 때로는 넘쳐흐르는 기쁨과 분노, 무엇보다 사람을 향한 진심이 행간에서 고스란히 읽혔던 기억이 선명하다.

서문에서 그가 말했듯이, 처음부터 책 발간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었기에 글을 쓰게 된 동기 또한 단순했을 터였다. 무엇이든 겁 없이 시작할 때가 가장 열정 넘치고 빛나는 순간이다. 뭘 알고 나면, 이것저것 고려해야 할 군더더기도 많아지고 그만큼 생각도 복잡해진다. 오죽했으면 시작이 반이라 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그는 참으로 현명하게 스스로에게 족쇄를 채웠다.

‘대구FC엔젤클럽 활동을 시작하면서 출사표를 던졌다. 대의명분이 있어서가 아니다. 중도에 탈락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자신에게 족쇄를 채우고 싶었다. 엔젤의 물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중략〉.. 엔젤 회원들의 가입이 늘어나면서 단체 카톡방의 가입과 탈퇴가 반복되는 현상을 보며 고민을 했다. 어떻게 하면 탈퇴를 멈출 수 있을까’

—〈건축쟁이 안상영의 대구FC 축구이야기〉 ‘퍼내는 글’ 중에서—

축구전문 해설가도 아니고 ‘건축쟁이’라는 멀쩡한 생업을 둔 그가, 책 발간의 목적도 없이 스스로에게 족쇄까지 채워가며 왜 글을 써야만 했을까? 단언컨대, 편집자의 입장에서 마주한 그의 모든 텍스트는 단순한 축구이야기가 아니다. 절박함조차 희망으로 감내해야 했던 대구FC엔젤클럽의 ‘기록의 역사’이다. 삶은 기록의 산물이며, 인간은 기록에 의해 진화해 간다. 그리고 그 기록은 종이와 활자에 의해 잉태되고 보존된다. 누군가는 손끝 하나면 충분한 디지털 시대에 종이



위 활자가 웬말이냐고 되묻기도 한다. 허나, 보고 읽는다는 것은 생경한 곳을 탐험하듯 늘 신비롭고 벽찬 경험이다. 지난 3년간 그가 만들어낸 160여 편, 20여 만 개의 활자들은 ‘책’의 그라운드를 누비며 다시 용솟음한다.

그의 텍스트와 함께했던 지난 두 달여, 종이 위를 꼬물대며 숨바꼭질하는 오타 녀석들과 적잖게 씨름했지만 많이 행복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부끄러웠다. 엔젤 상견례 후 구장장이나 모임에 나서기 어쩐지 어색해 쭈뼛쭈뼛 했던 지난 순간들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그러나 대구FC엔젤클럽 기록의 역사에 공범이 되어버린 이상, 이제 나만의 숨은 그림 찾기에 나서 볼 참이다. 텍스트의 주인공으로 함께했던 등장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을 퍼즐 맞추듯 찾아보는 재미... 생각만으로도 즐겁다.

간단하게 인쇄만 하기로 했던 일을 이렇듯 큰 판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응원해 준 대구FC엔젤클럽 이호경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 편집자로서 책의 저자에게는 더 행복한 족쇄와 짐을 지운다. 아름다움을 관장하는 아프로디테의 웃기처럼 안.상.영. 그가 존재하는 한 대구FC 엔젤클럽의 아름다운 기록의 역사는 계속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⁴⁾

엔젤 브리핑

대구FC엔젤클럽과 지역 사회 각 단체들과의 협약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엔젤클럽 회원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대구지역 어떤 단체에서도 엔젤을 만날 수 있다. 이에 엔젤클럽 회원이 소속된 단체와 엔젤클럽 간의 협약도 더욱 자연스러워졌으며, 여러 단체에서 엔젤들의 활약이 빛나고 있다.

대구FC엔젤클럽 이호경 회장은 “각 단체와의 협약식은 마음을 모은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대구의 모든 단체와 협약을 맺는다면 대구의 모든 시민들이 엔젤·엔시오가 되는 시간이 더욱 짧아질 것이며, 어려울 때마다 한 마음으로 일어나는 대구정신을 되찾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라며 협약을 맺을 때마다 힘이 불끈 솟는다고 했다.

대구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지난 4월 30일 대구FC엔젤클럽(회장 이호경)은 대구시 수성구 소재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의실에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와 상호협력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구지방변호사회 이춘희 회장을 비롯해 김각연 부회장 등 이사진과 대구FC엔젤클럽 이호경 회장, 엄태건 상임부회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1948년 7월 창립하여 현재 58개 법무법인, 8개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642명의 회원이 가입된 대구지방변호사들의 단체다. 지난 2017년 9월, 대구FC와 전북현대모터스의 2017 K리그 클래식 31라운드 경기에서 나온 VAR 편파판정 논란이 일어났을 때, 엔젤회원 중 변호사들로 엔젤 변호인단을 구성해 큰 역할을 한 바 있다.

대구지방행정동우회와 협약

지난 5월 14일, 대구FC엔젤클럽은 대구광역시 지방행정동우회와 상호협력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종근 대구광역시 지방행정동우회장을 비롯해 하중성 상근부회장 등 이사진과 대구FC엔젤클럽 이호경 회장, 강병규 상임부회장을 비롯한 이사진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1984년 설립된 대구광역시 지방행정동우회는 대구시와 각 구군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전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1,000여 명이 넘는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종근 대구시행정동우회장은 그 자리에서 엔젤클럽에 가입하였으며, “대구시행정동우회는 지역 발전을 위한 봉사라는 맥락에서 대구FC엔젤클럽과 닮았다”며 “전 회원에게 엔젤의 정신을 전파하여, 정치·경제적으로 걱정이 많은 요즘 같은 시기에 대구가 새로운 에너지로 희망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달서구축구협회와 협약

지난 5월 16일, 달서구 이곡동에 소재한 대구달서구축구협회 사무실에서 대구FC엔젤클럽과 대구달서구축구협회의 협약식이 진행됐다. 박명규 협회장을 비롯한 임원 10여 명이 하루 일과를 마친 저녁 6시 30분 협회 사무실로 모였다. 대구달서구축구협회는 이미 지난해 연말에 이사회를 거쳐 대구FC엔젤클럽과의 협약을 확정했으며, 이미 엔젤클럽에 가입한 회원이 10여 명, 엔시오에도 30여 명이다. 박명규 대구달서구축구협회장은 “대구FC엔젤클럽과 대구달서구축구협회의 가교 역할을 해주신 정소영 엔젤이자 협회고문에게 감사드리며, 두 단체가 협약을 맺는 오늘이 대구축구 발전의 혁명의 날로 역사에 남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구달서구축구협회는 연령대별로 36개 팀 1,3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대구 최대 규모의 생활축구협회다. 대구FC엔젤클럽 강병규 상임부회장은 “축구인의 땀을 알고, 축구의 에너지를 몸소 체험하며 살아가는 축구인들과의 협약은 어떤 단체보다 값진 협약이다”며 “이를 계기로 지역 내 다른 생활축구협회로도 전파되어 진정한 축구인들의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Angel & Life



01 **대구FC엔젤클럽 언론자문단 간담회**가 지난 1월 19일 호텔인터불고 대구(만촌동) 파크빌리지 2층에서 열렸다. 이날 박재일 자문위원(영남일보, 사진 왼쪽부터), 최고현 자문위원(대구MBC), 이호준 자문위원(매일신문), 최세호 자문위원(내일신문)을 비롯해 엔젤클럽 회장단, 임원이 참석해 2018년 대구FC 및 엔젤클럽의 성과를 돌아보고 2019년 자문단 활동 방향을 토의했다.



03 **정민교 엔젤**(대영채비 대표)가 지난 1월 29일 서울 동대문 디지털플라자(DDP)에서 열린 ‘한국 전자·IT산업 융합전시회’에서 ‘CES에서 본 스타트업의 미래’를 주제로 10여 분 동안 발표했다. 정민교 엔젤은 “아이템을 집요하게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이 출시에 적절한 시기를 찾는 것”이라며 “그동안 CES에 참가하며 수출을 늘려온 것도 정부와 대구시 지원 덕분”이라고 소개했다.



02 **최종태 엔젤**(솔트커뮤니케이션즈 대표)가 지난 1월 24일 대구경북광고산업협회 신임회장으로 선임됐다. 최엔젤은 호텔 수성 피오나홀에서 열린 이·취임식에서 지난 4년간 협회를 이끌어 온 엄복태 회장에 이어 제6대 협회장이 됐다. 대구경북광고산업협회는 대구·경북에 본사를 둔 14개 회원사로 구성돼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광고마케팅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광고산업 분야에서 수도권을 제외하면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04 **박병욱 엔젤**((주)디아이에프엔비달인식품 달인의 짬닭 체인사업전국회장)이 지난 1월 수성대학교 보건복지경영과 산학협동 교수로 위촉됐다. 한편, 박회장은 1월 16일 제12대 대구가톨릭대학 미래지식포럼 총동창회 회장으로 취임하기도 했다.



05 안용모 엔젤(전 대구도시철도건설본부장)이 지난 1월 영남일보와 함께 남극대륙을 밟았다. 퇴직 후 세계여행을 하고 있는 안 본부장은 지난 1월 17일 2박 3일의 비행과 4박 5일의 항해 끝에 지구의 마지막 남은 신비한 땅 남극대륙에 섰다. 새해 들어 남극대륙을 밟은 첫 한국인이다.



07 천자우 엔젤자문위원(주)에슬린 대표)가 지난 2월 15일 경일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축구선수 출신으로 축구동호활동은 물론 엔젤클럽 축구팀 공격수로 활동하고 있는 천자우 자문위원은 바쁜 시간 중에도 틈틈이 시간을 내 사업과 학업을 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06 엔젤클럽 대구FC 전훈방문단이 지난 2월 9일부터 10일까지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중국 상해에서 전지훈련 중인 대구FC 선수들을 방문, 엔젤격려금을 전달하는 등 선수들을 격려했다. 또한, 상해임시정부청사를 찾아 독립운동정신을 기렸다.



08 대구FC엔젤클럽은 지난 3월 5일 화요일 대영예고건설 6층 인문학 강의실 'CAN DO HALL'에서 아시아챔피언스리그(ACL) 데뷔전을 치르는 대구FC 선수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하여 엔젤 번개모임을 갖고 뜨거운 응원을 펼쳤다. 이날 대구FC는 호주 멜버른빅토리아에게 3대1로 승리하며 ACL 첫 승을 신고했고, 이호경 회장이 장소와 도시락, 엠태건 부회장이 치킨과 맥주를 지원했다.

09

조광래 대구FC 대표이사과 세징야 선수 부인 아니엘리가 명예엔젤이 됐다. 엔젤클럽은 지난 3월 17일 울산현대와의 K리그1 홈경기가 열린 날 엔젤룸(대회의실)에서 가임식을 갖고 조광래 대표와 아니엘리가 명예엔젤로 위촉했다. 아니엘리는 평소 엔젤클럽과 대구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며 엔젤클럽 회원들에게도 인기가 높다.



10 진영환 다이아몬드 엔젤(삼익THK(주) 회장)이 지난 3월 20일 상공의 날을 맞아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진영환 회장은 산업자 동화 설비의 국산화와 의료용 로봇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 수상자로 선정됐다.



12 서기수 엔젤(호텔인터불고 대구 회장)의 남다른 노력으로 '호텔인터불고 대구'가 5성급 호텔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5성급 호텔 선정은 대구 최초이며 서 회장은 그동안 대대적인 리모델링과 운영시스템 개선을 통해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호텔 인터불고 대구에는 엔젤클럽 사무국이 위치해 엔젤의 성지가 되고 있다.



13 도재영 대구FC엔젤클럽 자문위원이 민족통일대구광역시협의회 13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5월 17일 호텔라온제나에서 열린 이·취임식에서 도재영 엔젤은 12대 하윤수 회장(엔젤클럽 자문위원)에 이어 13대 회장으로 협의회를 이끌어 가게 됐다.

11



송준기 엔젤클럽 자문위원이 대구보건대학교 DHC TOP 총동창회 초대 회장으로 추대됐다. 지난 2017년 출발한 DHC TOP은 지금까지 4기 과정까지 총 300여 명의 원우들이 수료하면서 이번에 총동창회를 결성하게 됐다.(사진: 이상길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남성희 대구보건대 총장과 함께)

14



엠태건 엔젤본부 상임부회장은 지난 5월 22일 DGB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린, 광저우 헝다 타오바오와의 ACL 예선 최종전 전광판 응원을 리드하며 새로운 축구 응원문화를 만들었다. 한편 이날 중국 광저우에서 열린 경기에 원정을 떠나지 못한 700여 명의 엔젤과 축구팬이 함께 모여 대구FC를 뜨겁게 응원했으며, 엠 부회장은 입장하는 엔젤은 물론 축구팬들에게 일일이 엔젤 깃발을 나눠주고 응원을 독려하는 등 건전한 응원문화에 모범을 보였다.



Angel Photo Zone

엔젤 포토존에서 엔젤의 날개를 달다!

엔젤빌리지 앞에 조성된 엔젤 포토존에서
엔젤의 날개를 다신 분들을 기념합니다. 앞으로 포토존에서 촬영해 사무국으로
보내주시면 매거진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본 사진은 가나다 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김진기 엔젤 영문산업건설



김태균 엔젤 (주)에디커뮤니케이션즈



김형동 엔젤



나경윤 엔젤 남부스타코



도원호 엔젤 혜성정공



도재영 엔젤 (주)웅진기업



권오순 엔젤 (주)디에스시스템



김경미 엔젤



김경경 엔시오



문경화, 천순화, 박언희, 김규정 엔젤



박기원(아트건설), 배성훈(성훈건설) 엔젤



박기자 엔젤 무영



김상수 엔젤 히아브하나



김성욱 엔젤 유도리



김승우 엔젤 KS상사



박동천 엔젤 박국투어



박명규 엔젤 (주)우진설비



박태범 엔젤 삼성생명보험



박해동 엔젤 강북요양병원(왼쪽)



배종길 엔젤 IPM코퍼레이션



백승한 엔젤 홍림



이인혁 엔시오(엔시오 최초 사무국 방문)



이지환 엔젤 VIP응급환자이송센터



장성욱 엔젤 신창공업사



성점화 다이아몬드 엔젤 (주)뉴프라임



손대권 엔젤 대구은행 시지지점



송국영 엔젤 태왕



전성근 엔젤 SK반야월대리점



정연환 엔젤 삼진이엔피



조승우 엔젤 이지컴퍼니(주)



심왕국 엔젤 대운포장



안유학 엔젤 와이드자인랩



안홍윤 엔젤 YH바이오사이언스



주진현 엔젤 하늘나리



차영진 엔젤 제일컴



최오원 엔젤 이렌트카



윤형돈 엔젤 미래셋대우



이대형 엔젤 세계실업



이원재 엔젤 핑거스냅



최인규 엔젤 스마트아울렛



한종건 엔젤 호텔인터불고 대구



홍영호 엔젤 (주)바른로지스

엔젤카에 엔젤의 날개를 달다!

엔젤카가 간다!

엔젤 및 대구FC를 홍보하고, 엔젤의 각종 업무를 수행하는 엔젤의 발
‘엔젤카’가 오늘도 대구 시내를 누비고 다닙니다. 만나면 반가운 친구,
엔젤카와 함께한 엔젤들을 이번 호부터 게재합니다. 앞으로도 엔젤카를
보면 언제나 반갑게 맞아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본 사진은 가나다 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강병균 엔젤 에나멜치과기공소



강종구 엔젤 현대코퍼레이션(주)



강환수 엔젤 (주)덕산코트렌



고경아 엔젤



권오복 엔젤 (주)진명엘앤씨



김광덕 엔젤 비에스치과



김기현 엔젤 (주)가남금속



김동규 엔젤 범서



김동재 엔젤 골마켓



김범대 엔젤 미플러스 의원



김상덕 엔젤 부경TS



김승찬 엔젤 대구경북디자인센터



김영식 엔젤 국락코리아(가운데)



김오동 엔젤 명신종합건설



김재우 엔젤 삼일기업(오른쪽)



김종철 엔젤 신흥버스



김호용 엔젤 (주)건강누리



박희진 엔젤 은성복어



방용정 엔젤 (주)로그



나광무 엔젤 엘리바덴



박경우 엔젤 (주)현창건설



배주락 엔젤 (주)해성오피스탑



서명수 엔젤 가람컬렉션(주)



박두한 엔젤 경북비닐



박민천 엔젤 (주)다온PLUS



성점화 다이아몬드 엔젤 (주)뉴프라임



손대권 엔젤 대구은행 시지지점



박성묵 엔젤 대광문화인쇄



박우용 엔젤 대산라이팅



손주달 엔젤 (주)유원티씨



이동환 엔젤 (주)폴로래



이은호 엔젤 대영건축사사무소



이준호 엔젤 호신섬유



전용철 엔젤 근우정공



하호만 엔젤 (주)도원주택개발, 정영준 엔젤 (주)다원아이디



이지완, 박관식 엔젤 명진BS치과



이진호 엔젤 풍산기연



정찬두 엔젤 (주)세기리텍



최명환 엔젤 정건사중합건축사사무소



이철모, 박춘선 부부 엔젤 네네치킨



장성욱 엔젤 신창공업사



피상열 엔시오(지나가던 엔젤카 세워서 엔시오 가입)



하윤수 엔젤 한국공조



장철광 엔젤 (주)유일



전병규 엔젤 일신프라스틱



한승훈 엔젤 (주)유한상사



황현호 엔젤 변호사황현호법률사무소

2019 올해도 우리 챔피언!

DAEGU FC REPORT

ikon



QIB

지하철역, 길거리, 공원까지 대구 '대구FC의 하늘빛'을 입다!

대구역, 북구청역 대구FC 팀컬러, 슬로건, 엠블럼, 선수 사진 들어간 공간 변신
DGB대구은행파크 주변 독특한 공공시설물 설치로 '축구장 가는 길' 조성



대구FC가 DGB대구은행파크 주변을 특별하게 채우고 있다. 올해 홈경기장을 DGB대구은행파크로 옮긴 대구FC는 구단 이미지를 도시 곳곳의 문화 콘텐츠로 형상화하기 위해 대구시 도시재생과, 도시디자인과,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 북구청 등과 함께 도시재생사업에 뛰어든 것이다.

먼저 대구도시철도 대구역과 북구청역이 대구FC로 채워졌다. 팀컬러인 하늘색을 배경으로 'OUR CITY', 'OUR TEAM', 'WE ARE DAEGU'라는 슬로건과 엠블럼이 들어갔고 조현우, 세징야, 에드가, 정승원, 김대원 등 스타플레이어들이 벽면을 장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둥과 천장에는 'DGB대구은행파크 가는 길'이라는 사인물을 새로 부착, 시민들에게 축구장 가는 길을 안내하고 있다.

대구FC와 대구시는 대구역, 북구청역을 시작으로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주변 지역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펼칠 계획이다. 현재 대구FC 홈경기장 DGB대구은행파크가 포함된 복합스포츠타운에는 축구장뿐만 아니라 테니스장, 다목적 체육관 등의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또한 산책로를 조성하고 야외 운동시설을 설치하는 등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면 스포츠와 휴식이 공존하는 도심공원으로 시민들에게 개방될 예정이다.

경기장 주변도 테마거리로 조성된다. 대구시에 따르면 북구청네거리~삼성창조캠퍼스까지 910m 구간과 북구청역~DGB대구은행파크까지 680m 구간이 그 대상이다. '축구장 가는 길'에는 독특한 디자인의 가로등, 벤치 등 공공시설물과 축구를 소재로 한 조형물을 설치하여 DGB대구은행파크를 찾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가로 등에는 대구FC의 팀컬러인 하늘색과 슬로건, 선수 사진, 경기 일정 등이 게시된다. 대구FC와 대구시의 도시재생사업은 DGB대구은행파크 주변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리빙 레전드' 세징야 구단 역대 최초 30득점-30도움 달성

98경기 만에 30-30, K리그 최단 기록 2위
4시즌째 '에이스'로 팀 상승세 이끌어



대구FC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세징야가 30(득점)-30(도움) 달성에 성공했다. 대구의 '리빙 레전드' 세징야는 지난 5월 19일 오후 2시 DGB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린 인천유나이티드와의 하나원큐 K리그1 12라운드 경기에서 선제골을 터뜨려 팀 승리를 이끌었다. 이 골로 세징야는 30-30을 달성했다. 지난 시즌 26라운드 20-20을 달성한 이후 20경기(미출장 경기 제외) 만이다.

세징야는 지난 2016년 대구 유니폼을 입고 K리그에 데뷔해 통산 100경기 30득점 30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이 기록이 가지는 의미는 크다. 세징야가 대구 소속으로 30-30 클럽 달성에 성공한 첫 번째 선수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30-30 달 성으로 세징야는 물리나(92경기 30-30 달성)에 이어 K리그 최단경기 30-30 달성 2위에 올랐다.

세징야는 2016 시즌 K리그1 승격, 2017시즌 K리그1 잔류, 2018 시즌 FA컵 우승 등 '에이스'로서 팀의 상승세를 이끌었다. 2016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팀의 K리그1 승격을 이끈 중거리 슈팅 골과 2018 시즌 FA컵 결승전 1, 2차전에서 울산 을 상대로 터트린 2골이 대표적이다.

2018 시즌에는 11도움을 기록, K리그 도움왕에 올랐다. 올 시즌에도 4골 4도움 공격포인트 8개를 기록 중인 세징야는 현재 K리그1 공격포인트 선두에 올라있다. 올 시즌에도 유력한 도움왕 후보라고 할 수 있다.

K리그 최고의 외국인 선수로 자리매김한 세징야는 아시아 무대에서도 본인의 실력을 입증했다. 지난 3월 대구FC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ACL) 첫 번째 경기였던 멜버른전에서 팀의 ACL 첫 골을 터뜨렸고, 올 시즌 ACL에서 4경기 1득점 3도움을 기록했다. 30-30 클럽 달성에 대해 세징야는 "처음 대구에 왔을 때 구단에 역사를 남기고 싶다고 인터뷰를 했다. 실제로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어서 너무 기쁘다. 앞으로도 구단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대원 시즌 첫 ‘아디다스 탱고 어워드’ 수상

연맹 공식 SNS 채널 팬 투표에서 3,615표(79.2%) 득표
제주와의 경기에서 수비 두 명을 단숨에 제치는 터닝 슈팅 득점



대구FC 열풍의 주인공 김대원이 하나원큐 K리그1 2019 시즌 첫 번째 ‘아디다스 탱고 어워드(ADIDAS TANGO AWARD)’ 주인공에 선정됐다.

김대원은 지난 3월 9일 펼쳐진 대구와 제주의 경기에서 수비 두 명을 단숨에 제치는 터닝 슈팅 득점으로 대구FC 전용구장 DGB대구은행파크에 모인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개장경기에 모인 많은 팬들을 열광케 한 이 플레이를 통해 김대원은 올 시즌 첫 번째 ‘아디다스 탱고 어워드’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김대원의 플레이는 한국프로축구 연맹 공식 SNS 채널(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4월 8일부터 4월 10일까지 진행된 팬 투표에서 3,615표(79.2%)를 득표했다. 김대원과 함께 ‘아디다스 탱고 어워드’를 두고 경쟁했던 성남의 조성준은 949표(20.8%)를 받으며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지난해 신설된 ‘아디다스 탱고 어워드’는 한국프로축구연맹과 아디다스가 함께 손을 잡고 지난 한 달간 가장 센스 있고, 개성 있는 플레이 장면을 선보인 선수 1명을 뽑아 시상하는 상이다. 연맹은 매달 두 건의 플레이를 선정하여 연맹 공식 SNS채널을 통해 팬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 결과, 더 많은 팬들의 선택을 받은 플레이를 펼친 선수에게 이 달의 ‘아디다스 탱고 어워드’가 주어진다. 📸

대구FC 인기 마스코트 리카 공식 SNS 계정 개설 ‘공슴도치 리카 육아일기’

‘탄생 백일’ 맞은 마스코트 리카 오피셜 인스타그램 계정(@rica._official) 개설
1월 말 탄생 이후 귀여운 외모, 앙증맞은 춤사위로 팬들 사랑 받아



공슴도치 리카의 ‘숨 막히게 귀여운’ 일상이 SNS를 통해 공개됐다. 대구FC는 지난 5월 9일 탄생 100일을 맞이한 마스코트 공슴도치 ‘리카’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rica._official)을 개설했다.

공슴도치 리카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이하 리카 오피셜)은 ‘전지적 부모 시점’으로 리카를 소개하는 육아일기 컨셉이다. 첫 번째 피드는 육아일기답게 리카의 백일잔치 관련 내용이었다. 리카 오피셜은 리카의 백일잔치 사진과 함께 본문을 통해 “우리 리카가 백일을 맞이했습니다! 함께 축하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려요♥”라며, 지난 경기 리카의 집인 DGB대구은행파크를 찾은 관중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지난 1월 말 태어난 리카는 대프리카에 사는 축구공 모양의 공슴도치다. 귀여운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화가 나면 털을 가시처럼 만든 후 몸을 축구공 모양으로 만들어 상대편 골대를 향해 돌진하는 습성이 있다. 탄생 이후 귀여운 외모와 앙증맞은 춤사위로 ‘귀여워서 숨 막혀요’, ‘굿즈(Goods) 내놓아라’ 등 축구팬들의 폭발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실제로 대구는 리카 배지, 무릎 담요, 스프링 노트 등 굿즈를 출시했으며, 인형도 출시를 앞두고 있다.

호기심이 왕성하고 사람들을 좋아하는 리카는 대구FC 구성원들 그리고 대구시민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면서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리카의 다음 행보가 궁금하다면 리카 오피셜을 팔로우하면 된다. 리카의 모든 활동은 리카 오피셜을 통해 공유된다. 📸

공슴도치 리카

사람을 좋아하고 호기심이 왕성한 리카. 자신의 가시 때문에 사람들이 다치자 상처를 받고 공으로 가시를 덮은 채 DGB대구은행파크 주변을 돌아다니다 빅토를 만나게 된다. 빅토가 DGB대구은행파크에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행복한 상태다.

성 별 : 남자애인지 여자애인지 베일에 싸여 있음

연 령 : 100일

성 격 : 호기심 왕성, 사람을 좋아함

취 미 : 사인하기, 춤추기, 멍 때리기

공으로 변신하기
사람들과 사진 찍기
호우 세레머니 하기

직 업 : 대구FC 공식 마스코트

근무지 : DGB대구은행파크 내 집무실

친 구 : 빅토

RICA 공슴도치 리카

리카 육아일기 🐼
19.01.30 탄생
#공슴도치 #리카 #대구FC
#weareDAEGU

팔로워 591명 팔로잉 1명

게시물

좋아요 252개

리카._official 오랜만에 동생로 나들이 간다고 목욕하고 팔꿈치 리카...
옛.. 나는 멍발발 🐼

그래도 친구들 만나게 될 재밌다는 리카 보면서 안 데리고 나갈 수가 없당 ʘ

오늘은 나들이 갔다가 방송 출연까지!!! 🐼
긴장할까 걱정했지만 화면발 더 잘받네 ʘ ʘ 덕분에 내가 다 부듯 🐼
우리 리카 수고해 ʘ ʘ

충성 김진혁! 입대 신고

‘충성! 김진혁’ 잘 다녀오겠습니다 4월 이 달의 선수상 수상

올해부터 신설된 ‘이 달의 선수상’, 세징야에 이어 두 번째 주인공
상주상무 입대 전 마지막 홈경기 ‘김진혁 DAY’ 이벤트 마련



‘충성! 김진혁’. 대구FC 돌풍의 주역으로 활약하던 김진혁이 지난 4월 20일 홈경기를 끝으로 6월부터 상주상무에 합류했다. 마지막 홈경기에서 풀타임을 소화한 김진혁은 활발하게 피치를 누비며 멋진 득점으로 아름답고 완벽한 이별을 선사했다.

대구FC는 이날 김진혁의 입대를 기념한 홈경기 이벤트를 마련, 팬들과 함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팬들이 직접 쓴 진심 어린 손편지를 전달하는가 하면, 김진혁의 친필 사인 포스터를 선착순 500명에게 증정했다. 또한 경기 종료 후 김진혁을 위한 ‘폐창타임’을 준비해 S석에서 다함께 ‘이등병의 편지’를 불러주는 등 다양한 이벤트로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김진혁은 입대와 함께 ‘4월의 선수’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이달의 선수상’은 글로벌 스포츠게임 전문 기업인 일렉트로닉아츠코리아의 후원으로 올해부터 신설된 상으로 지난 3월 대구FC 세징야가 최초로 이 상을 받는데 이어 김진혁이 두 번째 주인공이 되었다.

한국프로축구 연맹은 지난 4월 한 달간 열린 K리그 경기의 베스트11과 최우수 선수로 뽑힌 선수들을 대상으로 연맹 경기위원회의 1차 투표를 진행해 후보를 선정했다. 여기서 상위권을 차지한 후보들을 두고 2차 팬 투표를 시행해 가장 많이 득표한 김진혁을 이 달의 선수로 선정했다. 김진혁은 1차, 2차 투표수 합산 약 49.65%를 차지해 배기종과 조현우 등 경쟁자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상주상무 입대 전까지 리그 6경기에서 4골 1도움을 몰아치며 ‘4월의 선수’로까지 선정된 김진혁. 그의 공백이 아쉽지만 튼튼해지는 ‘잇몸’이 뒷받침되고 주전 선수들이 다시 힘을 내며 전열을 정비한 대구FC의 돌풍은 계속되고 있다. 

Angel의 전사들



DAEGU FC
DAEGU FOOTBALL CLUB

대구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팀.
축구를 통해 대구가 행복할 수 있는
팀을 만들겠습니다.



감독 안드레

생년월일 : 1972. 11. 16.
전소속 : Bragantino



대표이사 조광래



코치 이병근

생년월일 : 1973. 4. 28.
수원삼성 / 한양대

GK코치 이용발

생년월일 : 1973. 3. 15.
인천UTD / 동아대



코치 최원권

생년월일 : 1981. 11. 8.
대구FC / 동북고



2군 코치 루이즈마

생년월일 : 1972. 11. 24.
U. D. Las Zocas

전력분석/통역 이종현

생년월일 : 1987. 1. 8.
김해시청



피지컬코치 베네디토

생년월일 : 1974. 3. 5.
Atletico Clube Goianiense



트레이너 박해승

생년월일 : 1984. 3. 11.
대구FC U-18 / 대구대



2군 통역 정철영

생년월일 : 1981. 11. 21.
전주공고 / 경희사이버대



트레이너 노현욱

생년월일 : 1970. 3. 13.
용인대 / 영신고





트레이너 이대균
생년월일 : 1990. 8. 8.
대구한의대



키트매니저 고강훈
생년월일 : 1994. 8. 16.
계명대



GK 1 최영은
생년월일 : 1995. 9. 26.
성균관대 / 과천고
189cm / 78kg
10경기 13실점



GK 21 조현우
생년월일 : 1991. 9. 25
전문대 / 중대부고
189cm / 75kg
172경기 1도움 217실점



물리치료사 박찬근
생년월일 : 1992. 12. 21.
전문대



DF 3 김우석
생년월일 : 1996. 8. 4.
신갈고 / 장안중
187cm / 74kg
32경기 1득점



DF 2 고태규
생년월일 : 1996. 8. 2.
용인대
190cm / 83kg



GK 25 이준희
생년월일 : 1993. 12. 10.
인천대
192cm / 89kg
27경기 30실점



GK 31 이현우
생년월일 : 1994. 3. 20.
용인대 / FC하남
184cm / 74kg



GK 41 이학운
생년월일 : 2000. 3. 9.
포항제철고
189cm / 68kg



DF 4 정태욱
생년월일 : 1997. 5. 16.
제주UTD / 아주대
194cm / 92kg
5경기



DF 13 송기웅
생년월일 : 1995. 10. 28.
아주대
173cm / 72kg



DF 16 강윤구
생년월일 : 1993. 2. 8.
목포시청 / 동아대
170cm / 70kg
18경기 1득점 1도움



DF 17 김준엽
생년월일 : 1988. 5. 10.
부천FC / 홍익대
178cm / 73kg
169경기 7득점 11도움



DF 6 한희훈
생년월일 : 1990. 8. 10.
부천FC / 상지대
183cm / 78kg
105경기 5득점

DF 5 홍정운
생년월일 : 1994. 11. 29.
명지대 / 개성고
187cm / 76kg
61경기 5득점 2실점

DF 28 이동건
생년월일 : 1999. 2. 7.
신갈고 / 원삼중
183cm / 69kg



DF 33 김태한
생년월일 : 1996. 2. 24.
한양대 / 현풍고
183cm / 77kg
3경기



DF 34 송준호
생년월일 : 1997. 12. 16.
중앙대
184cm / 72kg



DF 66 박병현
생년월일 : 1993. 3. 28.
부산아이파크 / 상지대
184cm / 83kg
24경기 2득점



DF 35 황유승
생년월일 : 1996. 5. 10.
고려대
175cm / 72kg



DF 39 박재경
생년월일 : 2000. 4. 28.
학성고
190cm / 80kg



MF 8 정선호

생년월일 : 1989. 3. 25.
성남FC / 동의대
182cm / 78kg
92경기 4득점 3도움

MF 19 정영웅

생년월일 : 1997. 4. 23.
중앙대
174cm / 69kg



MF 20 황순민

생년월일 : 1990. 9. 14.
소년벨마레 / 카미무라고
178cm / 69kg
144경기 13득점 11도움



MF 29 류재문

생년월일 : 1993. 11. 8.
영남대 / 서해고
184cm / 72kg
87경기 9득점 6도움

MF 36 박한빈

생년월일 : 1997. 9. 21.
신갈고 / 백암중
183cm / 80kg
47경기 3득점



MF 37 오후성

생년월일 : 1999. 8. 25.
현풍고 / 진주중
173cm / 64kg
1경기



MF 43 조우현

생년월일 : 2000. 5. 1.
청구고
181cm / 76kg

MF 23 예병원

생년월일 : 1998. 3. 25.
대륜고 / 대륜중
174cm / 65kg



MF 26 고재현

생년월일 : 1999. 3. 5.
대륜고 / 대륜중
180cm / 67kg
12경기 1도움



MF 27 박민서

생년월일 : 2000. 9. 15.
현풍고
175cm / 68kg



MF 38 장성원

생년월일 : 1997. 6. 17.
한남대 / 통진고
175cm / 70kg
9경기 1도움



MF 40 조용재

생년월일 : 1998. 1. 6.
현풍고 / 석관중
173cm / 68kg





FW 7 다리오

생년월일 : 1991. 9. 11.
Neftçi PFK
184cm / 75kg



MF 44 초바사

생년월일 : 1990. 4. 8.
MFK ZEMPLIN MICHALOVCE
173cm / 66kg
9경기



FW 11 세징야

생년월일 : 1989. 11. 29.
Bragantino
177cm / 74kg
88경기 26득점 26도움



MF 45 이해웅

생년월일 : 1998. 11. 20.
174cm / 68kg
신갈고 /
2경기



FW 9 에드가

생년월일 : 1987. 1. 3.
Buriram United
191cm / 87kg
18경기 8득점 3도움



FW 32 정치인

생년월일 : 1997. 8. 21.
대구공고 / 울진중
182cm / 71kg
6경기



FW 42 손석용

생년월일 : 1998. 9. 4
현풍고 / 천안중
179cm / 75kg



FW 77 전현철

생년월일 : 1990. 7. 3.
175cm / 72kg
아주대 /
137경기 14득점 4도움



FW 15 임재혁

생년월일 : 1999. 2. 6.
신갈고 / 백암중
180cm / 66kg
8경기 1득점



FW 14 김대원

생년월일 : 1997. 2. 10.
보인고 / 송실중
171cm / 65kg
39경기 4득점 6도움



FW 18 정승원

생년월일 : 1997. 2. 27.
안동고 / 신태인중
170cm / 68kg
40경기 4득점 3도움





HALF TIME TALK

엔젤은 사랑입니다
대박 개막전 첫 프로포즈
(이원재 엔젤, 우순월 님)

여유와 배려, _____ _____엔젤의 품격



글, 김유석 엔젤(문학치료학 박사,
늘봄 심리치유연구소·썸 입시전략 연구소 대표)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는 연탄을 소재로 한 3행의 짧은 시이다. 그러나 이 시가 던져주는 메시지는 긴 여운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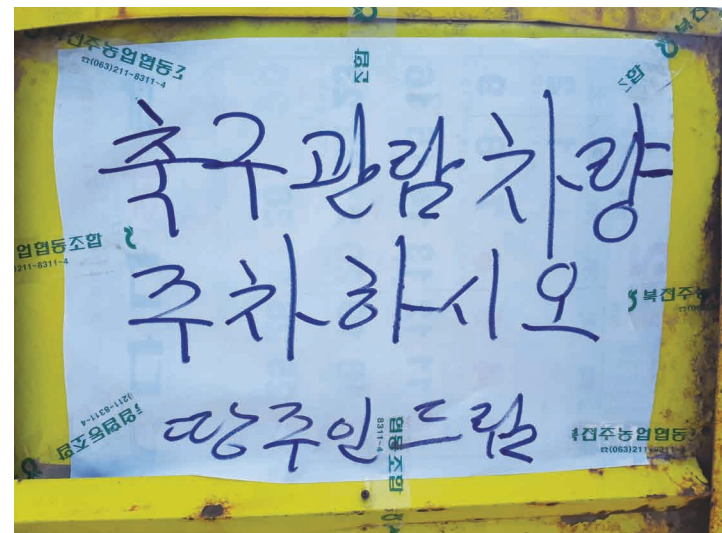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2001년 일본, 지하철 승강장에서 실족한 사람을 구하다 희생한 이수현씨를 의인이라 부르며 추모하고 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생면부지의 타국인을 위해 희생했기 때문이다. 그는 왜 먼 타국에서 살신성인을 하였을까? 대구FC의 2019년 개막 경기는 지난 3월 1일 전주에서 전년도 K리그 우승팀인 전북과의 슈퍼매치였다. 열성적인 엔젤들과 함께 엔젤 소속 축구선수들도 두 대의 차에 나누어 원정 응원길에 올랐다. 도착하면서 주차를 걱정하기 시작했는데, 먼저 도착한 엔젤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멋진 곳을 발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착한 곳은 경기장 주변 도로변의 벽돌공장(?)이었다. 입간판에 붙여진 글귀를 보는 순간 놀라움과 감동에 전율을 느꼈다. ‘축구 관람 차량 주차하시오, 땅 주인 드림’ ‘여기에 절대 주차금지’에 익숙해 있던 우리 일행은 땅 주인의 해안에 박수와 칭찬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분명 이 분은 여유롭고 배려가 넘치는 사람일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졌다.

나의 작은 감동은 대팍(DGB대구은행파크) 개막전으로 이어졌다. 대팍에서의 첫 경기는 인산인해였다. 하지만 예매에서 착오가 생겨 엔젤석까지 티켓팅이 되면서 자칫 큰 혼란이 일어날 뻔 했으나 ‘엔젤 아재(?)’들의 배려로 잔칫집은 춤과 노래 소리로 넘쳐났다. 멋진 아재들이라는 애칭은 팀이었다. 엔젤은 경기도 이겨서 즐거웠고, 엔젤클럽의 품격도 높여서 그야말로 잔칫집에 소가 들어온 격이었다. 이타적이란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 배려는 나를 희생하고 남을 보살피 주는 것. 이타적이고 배려하는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혜가 있어야 하고 여유가 있어야 한다. 여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시간, 공간, 경제 등 상황적 여유와 마음의 여유이다. 배려와 희생은 마음의 여유에서 우러나온다고 성현들은 오래 전부터 역설했다. 엔젤클럽은 이제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어느 단체보다도 강해졌다. 그 이유는 마음의 여유에서 우러나오는, 바로 연탄이 지닌 속성을 엔젤클럽이 지녔기 때문이다. 누군가 나에게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큰 소리로 “나는 엔젤이다.”라고 대답할 것이다.4)

배려하는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혜가 있어야 하고 여유가 있어야 한다. 여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시간, 공간, 경제 등 상황적 여유와 마음의 여유이다. 배려와 희생은 마음의 여유에서 우러나온다고 성현들은 오래 전부터 역설했다.

- 1 전북전이 열린 전주에서 발견한 입간판
- 2 울산전 기수단으로 참여한 김유석 엔젤
- 3 경기장 위에서 볼을 치는 김유석 엔젤



지금, _____ _____ 베트남에선



글. 박태영 엔젤
((주)케이아이티)

축구를 좋아하고 대구FC를 열렬히 응원하고 좋아하는 팬으로서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기쁩니다. 잘 쓰지는 못하지만 회사 업무상 베트남 출장을 가서 베트남 현지 사람들의 축구사랑과 열기, 그리고 제가 느꼈던 에피소드들에 대해 소개하려 합니다.

동남아시아에 속한 베트남에는 AFF 스즈키컵이라는 대한민국, 중국, 일본이 속한 동아시아컵과 비슷한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베트남이 이 AFF 스즈키컵에서 말레이시아를 이기고 10년 만에 우승을 했다는 사실은 베트남 국가대표 감독을 맡은 박항서 감독 때문이라도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모두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베트남에서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국민 영웅으로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게 호의적인 사람들이 많아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마주치는 베트남 사람들에게서 “박항서 감독 최고!”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 축구도 좋아한다”는 많은 얘기들을 쉽게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겪었던 웃지 못할 일도 있었습니다. 아시안컵 베트남과 요르단의 16강전 때 회사 업무가 좀 늦게 끝난 관계로 호텔로 돌아가려고 택시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택시 기사들이 모두 축구를 보러간 탓인지 평소에는 줄을 지어 기다리고 있던 택시들이 단 한대도 없어 찢찢 땀던 일도 있었습니다. 축구가 다 끝나고 베트남이 요르단에 승부차기로 이기면서 경기가 끝난 후는 간신히 택시를 잡고 호텔로 돌아갔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지금 베트남 축구가 베트남인들의 열광적인 사랑을 받고 있듯이, 대구FC의 열정적인 팬으로서 우리 대구FC도 팬들과 서포터즈로부터 꾸준하게 무한한 사랑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가지에서 상대적으로 떨어진 공단 지역에 회사 업무지가 있었지만, 그 앞에 있는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베트남 축구를 응원하는 베트남 사람들의 환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시안컵 이후에 베트남 국가대표 축구선수인 꺽하이, 콩푸엥이라는 두 선수의 이름을 국내외 여러 매체에서 자주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콩푸엥은 베트남 메시라는 별명도 있으며, 이번에 K리그1의 인천유나이티드로 이적을 했는데요. 그로 인해 한국에 있는 베트남 사람들이 인천유나이티드 경기장에 콩푸엥을 보러 많이들 온다고 하는데, 실제로 베트남의 하늘을 찌를 만큼 거센 축구 열기는 베트남인들의 축구 열정과 사랑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요즘 박항서 감독으로부터 시작한 축구 한류 붐은 베트남 V리그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국 감독들의 베트남 진출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는 베트남에서 시작해 동남아에 불고 있는 축구계의 한류 붐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지금 베트남 축구가 베트남인들의 열광적인 사랑을 받고 있듯이, 대구FC의 열정적인 팬으로서 우리 대구FC도 팬들과 서포터즈로부터 꾸준하게 무한한 사랑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K리그1 우승, 아시아챔피언스리그(ACL) 우승을 하여 명문구단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랍니다.⁴⁾



DGB대구은행파크에서 아들과 함께



축구의 나라, 칠레를 가다

글, 안용모 엔젤(전 대구시도시철도건설본부장)



1933년 건설, 1962년 칠레월드컵 개최, 코파아메리카 대회 우승을 차지한 산티아고 국립경기장

지구촌에서 가장 긴 나라 칠레

칠레는 세계에서 가장 긴 나라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남북 총길이 약 4,300km로 북쪽에는 아타카마의 뜨거운 사막 지대부터 중남부에는 피오르 해안의 온화한 기후, 남부에는 얼어붙은 빙하 지대가 있다. 수도 산티아고(Santiago)는 칠레의 정치, 문화, 관광의 중심지이자 여행자들이 잠시 쉬어가는 남미 여행 충전의 도시이기도 하다.

산티아고의 중심 아르마스 광장에 도착하면 산티아고 옛 건축물들과 대성당을 만날 수 있다. 이곳에는 침략자의 동상과 그 침략자에 맞서 싸웠던 민족 지도자의 동상이 나란히 마주보고 있다. 광장의 다른 한쪽에는 페드로의 기마상과 대조적으로 하회탈을 닮은 콜로콜로탐의 엠블렛이 된 마푸체(Mapuche)인의 인물 석상이 있다. 단단한 동으로 조각된 페드로와 깨지기 쉬운 돌로 만들어진 마푸체족의 대비가 매우 인상적이다.

시내 여기저기를 관심 있는 지하철을 타고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온몸 가득 활기가 밀려 왔다. 커피가 유명하다는 카페에서 여행 수첩에 낙서를 하고, 유서 깊은 레스토랑에서 파스타를 먹으며 여행자의 여유를 부릴 수 있었다. 축구경기장을 갈 때도 이용하는 산티아고 지하철은 중남미 국가들 중에는 노선별 색상이 다른 6개의 노선망으로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시민들의 대중교통은 물론 여행자들이 이용하기에 가장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요금은 러시아워 시간의 혼잡을 고려하여 이용 시간대에 따라 다르다.

시장을 가야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중앙시장(Mercado Central)을 찾았다. 백화점에 포장되어 귀한 취급을 받을 프리미엄 와인도 이곳에서는 동네 술 가게에 대충 가득 꽂혀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싸다는 이유만으로 몇 병을 들고 와 아무리 마셔도 취하지 않는 것은 이미 이곳의 아름다움과 축구에 취한 뒤여서 일까?

축구의 도시 산티아고

산티아고는 축구의 도시이기도 하다. 칠레는 월드컵 9회 출전에 1962년 자국에서 열린 대회에서 3위, 16강 진출도 3차례 기록하고 있는데, 예선을 통과해서 토너먼트만 가면 무조건 브라질을 만나서 졌다는 특이한 기록도 있다. 그리고 2015년과 2016년 코파아메리카 2회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중남미의 강자로 군림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선수로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명문클럽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고 있는 칠레 출신의 공격수 알렉시스 산체스, 바이에른 뮌헨에서 메시가 있는 FC바르셀로나로 이적한 아르투로 비달이 칠레의 핵심 선수로 평가받고 있다.

칠레의 프리메라 디비시온(Primera División del Fútbol



1 마푸체족의 인물 석상과 목에 건 인물 석상 목걸이
2 두개의 칠레 모자를 쓰고 경기장 가는 길에 만난 학생들과

Profesional Chileno)은 1933년에 설립된 칠레의 최상위 프로 축구 리그이다. 2013년부터 봄에 리그가 시작하는 춘추제에서 가을에 리그가 시작하는 추춘제로 바뀌었다. 2015~2016 시즌부터 16개 팀이 참가하게 되었으며, 전기 리그와 후기 리그로 나뉘어 진행된다. 후기 리그 종료 후, 우승을 가리기 위한 플레이오프가 진행된다. 전기, 후기 리그를 종합하여 가장 낮은 성적을 거둔 두 팀이 강등된다. 강등된 두 팀은 프리메라 B에서 우승과 준우승을 각각 거둔 두 팀으로 대체된다.

세계에서 현존하는 축구 대회 중 가장 오래된 코파아메리카(Copa America)는 남미 대륙의 축구 선수권 대회이다. 코파아메리카의 메인 경기장인 산티아고 국립경기장(Estadio Nacional)은 48,665명을 수용 가능한 대형 경기장으로 1933년 건설되었으며, 2010년에 현재의 경기장으로 리모델링했다. 1962년 칠레월드컵이 이곳에서 개최되고 결승전이 열려 브라질이 우승하였다. 최고 관중 수는 1962년 12월 29일 우니베르시다드 카톨리카(Universidad Catolica)와의 경기에 85,268명이 입장했다고 한다. 2015년 코파아메리카에서 개최국인 칠레 대표팀의 경기는 모두 이곳 경기장에서만 진행되었고 칠레는 그 덕분에 우승을 차지했다.

국립경기장에 들어서면 열광적으로 응원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남미 축구는 언제 보아도 박진감이 넘치고 생생한 긴장감이 살아 있다. 무엇을 상상했던 상상이 그 이상을 보여주는 열정 가득한 축구 경기를 직관할 수 있는 콜로콜로(Colo-Colo) 경기다. 평생 잊지 못할 최고의 경기를 경험하게 된다.



- 1 칠레에서 가장 유명하고 인기있는 콜로콜로팀의 홈경기장인 데이비드 아레야노 경기장
- 2 응원 용품을 나눠주는 경기장 입구
- 3 응원 용품과 기념 셔츠가 널려 있는 축구장 인근
- 4 콜로콜로팀의 상징인 마푸체 인디언상과 인기 유니폼을 전시 판매하고 있다.
- 6 축구에 대한 열기가 얼굴 페인팅과 열광적인 응원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콜로콜로팀의 홈경기장 데이비드 아레야노(Monumental David Arellano)는 기념비적인 축구경기장으로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서 남동쪽 지역인 마쿨(Macul) 코무나에 위치해 있다. 경기장의 수용 규모는 47,347석으로 1956년 건설되었다. 이름의 유래는 콜로콜로 구단의 설립자이자 칠레 축구계 초기의 스타인 데이비드 아레야노를 딴 것이다. 칠레 축구 국가대표팀이 국립경기장을 이용할 수 없을 때 이곳을 사용하기도 한다. 칠레의 여러 스포츠 클럽들의 국제 대회 규모 경기를 개최할 때 이 구장을 임대하기도 한다.

칠레에서는 흔히 티켓박스 앞에 유니폼을 입은 거지들이 많이 보였고 표를 사고 난 후 거스름돈을 구걸하며 축구를 보고 싶다고 하면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 같았다. 나도 민박집 주인의 도움으로 일찍 티켓을 구하는데 성공했다. 프로축구 입장권은 좌석에 따라 14,000~27,000페소(한화 약 24,000~47,000원)정도로 K리그보다는 비싸다. 아쉽게도 일반석 밖에 구하지 못했으나 콜로콜로의 일반석은 어린이들과 여자들이 많은 가족적인 분위기였다. 이곳에서도 관중석의 이방인인 나에게 박수를 보내고 엄지를 세우며 호의적이었다. 달아오른 경기장, 한편으로는 혼란스럽기까지 하면서도 다혈질인 이곳의 스탠드 한쪽에 조심스레 자리를 틀고 앉았다. 이제 어느 정도 남미의 격정적이고 요란한 축구장 생리에 적응되어 가는 것 같았다.

남미에서 다소 부유하다는 칠레는 올림픽 성적은 부진하지만

축구 인기만큼은 대단하다. 어느 남미 나라와 같이 축구에서만 큰 엄청난 애정을 보인다. TV 스포츠 채널을 돌리면 모두 축구 소식과 경기밖에 없을 정도다.

칠레 축구의 양대산맥 콜로콜로와 우니베르시다드

칠레는 너무나 긴 영토 때문에 대부분의 클럽 팀들이 수도 산티아고 주변에 몰려 있고, 산티아고에는 칠레 축구의 양대산맥이 있다. 칠레 클럽 축구에서 가장 명실상부한 명문팀은 바로 콜로콜로(Colo-Colo)와 그 라이벌인 우니베르시다드 카톨리카(Universidad Católica)다. 칠레 더비매치는 콜로콜로 대 우니베르시다드 경기이다. 특히 콜로콜로가 산티아고를 기반으로 활약하고 있다. 프로축구 경기를 보기 위해 산티아고를 찾는 사람들의 심증팔구는 콜로콜로팀의 경기를 보기 위해서다. 이 전설의 구단 경기를 보기 위해 아침부터 경기장을 찾는 사람들이 줄을 선다. 콜로콜로는 1925년 창단된 팀으로 16세기 스페인과의 독립전쟁 당시 마푸체(Mapuche) 족장인 콜로콜로의 이름에서 따왔다. 콜로콜로는 리그 우승 32회, 1991년 대륙 토너먼트인 코파 리베르타도레스(Copa Libertadores)에서 우승한 최초의 칠레 프로팀이기도 하다. 칠레에서 가장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니폼 흰색 상의는 순결, 검은색 하의는 진지함을 나타낸다. 60년대 초부터 팬 그룹이 형성되어 1980년대에는 서포터즈 그룹이 Garra Blanca로 불렸고, 2000년대 들어서 Barra Brava라고 불리게 되었다. 칠레 최고 명문팀이자 칠레 유일의 코파 리베르타도레스 우승 클럽이다.

우니베르시다드는 1927년 Club Náutico 와 Federación Universitaria를 통합해 El Club Deportivo Universitario로 탄생했다. 지혜, 육체와 정신의 조화를 상징하기 위해 로고로 올빼미를 선택했다. 1980년까지 클럽은 Universidad de Chile 학생들로 구성된 학교 팀으로 운영되었으나, 그 시기 설립된 사립 대학교를 강화하려는 군부독재 정책에 따라 독자적인 클럽으로 분리됐다. 우니베르시다드는 창단 3년만인 1940년에 첫 번째 타이틀을 획득한 이후 리그 우승 18회와 남미 대륙 토너먼트에서 훌륭한 성적을 거두고 있어 남아메리카의 FC 바르셀로나라 불리기도 한다. 우니베르시다드는 자체 홈구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대신 산티아고 국립경기장을 빌려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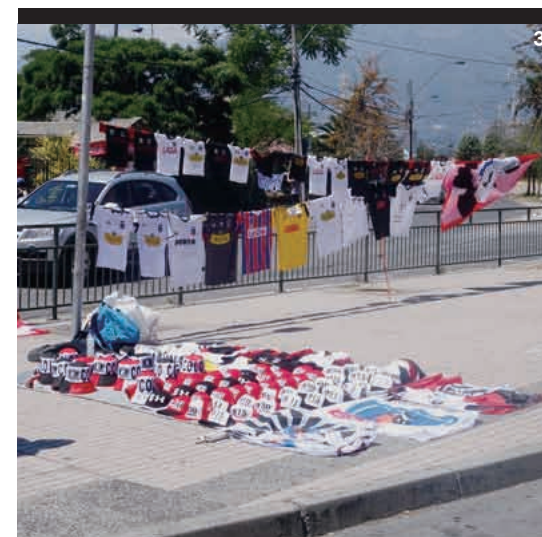
오늘날 존재하는 두 팀 간 악감정의 시발점은 1940년 더비에서 발생한다. 우니베르시다드의 호세 발부에나가 콜로콜로의 알폰소 도밍게스에게 악랄한 태클을 날렸고, 도밍게스는 주먹으로 화끈하게 보답하고 퇴장 당하게 되는데, 이것이 양팀의 라이벌 의식을 강화하게 만든 계기란다. 가장 많은 관중수로 기록된 것은 1986년 국립경기장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한 경기로 77,848명이 관람했다.

칠레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축구팀은 콜로콜로와 우니베르시다드다. 사실상 산티아고 축구팬들은 콜로콜로 아니면 우니베르시다드 둘 중 하나이다. 물론 많은 팀들이 있지만 이 두 팀이 거의 칠레 축구를 대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콜로콜로가 조금 더 인기가 많다. 그 이유는 구단 역사가 오래 되었으며, 처음 창단 시에 인디오 및 사회 하층민을 대변하는 팀이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콜로콜로의 엠블렘에는 인디오의 문양이 새겨져있으며, 팬층이 사회의 하층민이라고 한다. 구단 역사적으로 오래된 팀이자 역대 성적에서 좋은 성적을 많이 낸 팀이기에 좋아하는 것 같다.

실제 콜로콜로라는 명칭에는 지역 이름도 기업 이름도 아닌 이전에 인디오를 상징하는 하나의 상징성만 남아 있다. 반대로 우니베르시다드의 경우는 대부분 대학 졸업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회적 엘리트들이 좋아하는 팀이다. 사실상 엘리트 축구팀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가끔 경기장 폭력 같은 불상사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가장 많은 사례가 콜로콜로와 우니베르시다드 간의 경기 때이다. 경기 시작 며칠 전부터 TV나 신문에서 보도를 시작하고 두 팀 간의 경기가 열리는 날이면 엄청난 응원전이 나타난다. 경기장으로 향하는 시내버스에서 이미 응원전이 시작되어 깃발을 들고 있는 서포터즈들 간 기 싸움이 간혹 폭력 사태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만큼 양팀 간의 경기는 칠레 프로축구에서 상당한 빅매치라고 할 수 있다.

이미지가 상반되는 두 팀이기에 어쩌면 칠레의 사회적 약자와 엘리트간의 상징적인 대결로도 볼 수 있고, 팀 간 자존심 대결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아무튼 이 두 팀 간의 경기가 열리는 날의 분위기는 항상 과열되어 있다. 지나가는 자동차들도 박자를 맞춰 뺑뺑 거릴 뿐만 아니라, 조명탄을 쏘고 길거리의 동상에 올라가 깃발 흔들고 노래하며 광란의 도가니가 된다. 역시 칠레 사람들은 축구를 참 좋아하는 것 같다.4





대구FC엔젤클럽의 성공 비결은?

“대구의 성공에 일조한 숨은 조력자, 전국 어디에서도 찾기 힘든 대구에만 있는 스포츠 시민 후원 단체.”

보통의 프로 스포츠 구단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후원·스폰서십을 진행하는 사례는 대표적으로 지역 상권과 결합하는 형태이다. 흔히들 ‘후원의 집’ 또는 ‘~하우스’라는 이름으로 지역 내 기업이나 소상공인들과 후원 계약을 맺는다.

하지만 대구의 ‘엔젤클럽’은 우리가 흔히 아는 형태와는 조금 다른 성격이다. 기업이나 단체가 아닌 개인에 의한 후원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해준다. ‘후원의 집’이 단순히 구단과 업체가 연결되어 상호보완적 성격에 맞게 협업을 하는 것이라면, ‘엔젤클럽’은 한 단계 더 나아가 대구FC라는 공통점 아래에 커뮤니티를 형성하며 인적 네트워크의 장을 만들어준다.

경기장 건설과는 달리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전략이기에 타 구단에서도 벤치마킹하려는 성공 사례 중 하나이지만, 아직 대구만큼 구체적으로 구성되어있는 조직은 없다. 구단 내외의 상황이나 환경 또는 그저 의지의 차이로 볼 수도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커뮤니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글, 김지훈
(성균관대학교 스포츠학과)

현시대에서 연결을 통한 커뮤니티는 분야를 막론하고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우리는 단순히 가족, 학교, 직장을 넘어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한 커뮤니티에 속해 있고, 이러한 연결은 우리의 삶을 지속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이는 비즈니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공유경제의 대표주자 우버, 에어비앤비 등이 커뮤니티를 바탕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같은 소셜미디어에서도 연결을 통해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그것이 곧 비즈니스와 직결된다.

다시 말해, 옛날처럼 제품 그 자체가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이 거래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단순히 제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것을 넘어 제품을 매개로 구매자와 상품, 구매자와 판매자, 구매자와 또 다른 고객 등을 연결하는 서비스를 파는 형태인 것이다. 이러한 연결을 더욱 공고히 해주는 것이 커뮤니티이다.

다시 대구FC의 사례로 돌아와, 엔젤클럽은 현재 단순히 금전적인 부분을 후원하는 것 이상으로 다양한 파급효과를 내고 있다. 다양한 현물 후원과 재능 기부는 물론이고, 소식을 전달하는 엔젤클럽 매거진까지 발행하며 대구FC 발전에 힘을 쏟고 있다. 구단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발생한 커뮤니티이기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더욱더 성장할지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다.

한때 FC바르셀로나의 소시오 정책의 성공을 보며, 몇몇 시민구단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표방했지만 성공적으로 정착하지는 못했다. 얼마 전 K3 고양시민축구단도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했지만, 3~4차례 기간을 연장했음에도 결국 총 목표 금액의 52% 달성으로 펀딩에는 실패했다.

같은 정책으로도 성공한 대구FC와 실패한 타 구단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중요한 것은 혜택보다 커뮤니티 형성이다. 시민구단은 그 지역의 시민들을 연결시켜줄 커뮤니티가 되어야 한다. 고객을 모으기 위해 어떤 혜택이 좋을지를 먼저 고민하기보다는 커뮤니티가 왜 필요하고, 어떻게 만들어 운영해나갈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최초의 시민구단 대구FC가 새로운 성공 사례를 써내려가며 시민구단의 롤모델로 성장하길 기대해본다. 글의 마지막 막은 지금의 엔젤클럽을 있게끔 만든 이호경 대구FC엔젤클럽 회장의 말로 끝내려 한다. “시민구단도 명문구단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 대구시민이 대구FC를 살펴보는 대구사랑운동으로 승화되어 엔젤클럽이 하나의 문화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 대구에서 축구 경기가 열리는 날에는 축구전용구장을 가득 메워서 축제가 되길 꿈꾼다. 그냥 꿈만이 아니라 반드시 실현되리라 확신한다. 대구는 축구다! 축구는 대구다!”

그리고 그 꿈은 뜬구름이 아닌 점차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⁴⁾





2019 DAEGU FC MATCH SCHEDULE

K League 1

■ Home □ Away

6월 June

날짜	시간	상대팀	경기장
2 Sun	19:00	포항	포항스틸야드
15 Sat	19:30	강원	DGB대구은행파크
22 Sat	19:30	서울	DGB대구은행파크
29 Sat	19:00	제주	제주월드컵경기장

7월 July

날짜	시간	상대팀	경기장
6 Sat	19:30	경남	DGB대구은행파크
10 Wed	19:30	전북	DGB대구은행파크
14 Sun	19:00	성남	탄천종합운동장
21 Sun	19:00	상주	상주시민운동장
30 Tue	19:30	수원	DGB대구은행파크

8월 August

날짜	시간	상대팀	경기장
2 Fri	20:00	서울	서울월드컵경기장
11 Sun	19:30	울산	울산종합운동장
17 Sat	19:30	경남	DGB대구은행파크
24 Sat	19:30	강원	DGB대구은행파크

9월 September

날짜	시간	상대팀	경기장
1 Sun	19:00	상주	상주시민운동장
14 Sat	19:00	포항	DGB대구은행파크
22 Sun	17:00	인천	인천축구전용경기장
25 Wed	19:00	전북	전주월드컵경기장
28 Sat	14:00	제주	DGB대구은행파크

10월 October

날짜	시간	상대팀	경기장
6 Sun	14:00	성남	탄천종합운동장



대구FC엔젤클럽 임원단이 대구FC 선수들을 응원합니다.

대구FC가 걷는 **꽃길**을 위하여!



대영에코건설(주) 이호경 회장



세영회계법인 강병규 운영본부 상임부회장



(주)태준메디칼 엄태건 엔젤본부 상임부회장



(주)JID 김완준 엔시오본부 상임부회장



(주)에드앤피알스미스
이태훈 상임이사



(주)다원아이디
정영준 상임이사



뉴스웨이 대구·경북
강정영 상임이사



(주)대영씨앤디
송원배 상임이사



(주)창성산업
정소영 상임이사

※ 본 명단은 가나다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Diamond Angel

대구FC엔젤클럽, 대구FC와 영원히!



이재하
삼보모터스(주)



진영환
삼익THK(주)



조종수
(주)서한



정태일
한국OSG(주)



진덕수
대흥코스텍(주)



이익재
(주)세신정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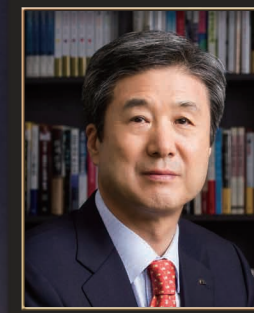
노기원
(주)태왕E&C



정태호
대영코어텍(주)



김동구
금복주



이충곤
SL그룹



백서재
(주)대영전자



권원강
교촌그룹

New Diamond Angel



김상태
평화정공(주)



성점화
(주)뉴프라임



문경화
하안얼굴예쁜몸매(주)로로피아니



박진현
(주)홀삭스

대구FC Angel Club 명단

엔젤클럽 자문위원			
성명	회사명	성명	회사명
권오섭	청구푸드시스템	송준기	대한적십자사 대구광역지사
김성열	(주)아나	엄달현	대창엠코
김영채	안경회계법인	이병훈	대구 스텐레스
김충환	김창준 미래한미재단	장익현	장익현 변호사 사무실
남성희	대구보건대학교	주대중	함창교육재단
도재영	주식회사 웅진기업	천자우	(주)에슬린
박명수	명진금속	하윤수	한국공조
박병구	대구미술협회장	하춘수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순복	대가대 미래포럼 리더스 클럽	허흥만	명성골프
반용석	반치과	장병배	상인성당

엔젤클럽 상임부회장		엔젤홍보사진가문단	
성명	회사명	성명	직책
강병규	세영회계법인	김흥만	엔젤클럽 홍보사진작가
김완준	(주)JID	박익진	엔젤클럽 홍보사진작가
엄태건	(주)태준메디칼	유병완	엔젤클럽 홍보사진작가

엔젤클럽 부회장			
성명	회사명	성명	회사명
권석원	동진건설(주)	신용범	한미산업
김재홍	대호약품	윤태경	바로본병원
김주성	광개토병원	이동경	(주)도원투자개발
김현만	서원종합건설	이승현	(주)동서개발
박해대	미래테크	조만현	(주)동우씨엠건설
배성혁	DIMF 조직위원장	황종길	성신내장건설
서정원	(주)대선		

대구FC Angel Club 명단

※ 본 명단은 가나다순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성명	회사명	성명	회사명	성명	회사명
강민수	세영회계법인	곽준성	삼성전자	김경미	
강민정		곽진섭	(주)금오조경개발	김경태	리더스 금융판매
강병규	세영회계법인	구건우	PR네트웍스	김고용	명종스틸
강병균	에나멜치과 기공소	구덕모	중소기업 복지지원단	김관식	더나은요양병원
강병호	신경일염직	구명임	(주)크린포시스템	김광덕	대구시 사격연맹
강보철	일진수지	구미숙		김광배	대영에코건설(주)
강삼동	에이치	구본도	렉서스 대구	김광수	한맥창호
강성길	(주)디자인비전	권경훈	강북연합정형외과	김국경	세영디앤씨
강성민		권 광	행복을 심는 치과	김규일	세원이엔지
강신일	대영리츠건설	권대열	(주)부원	김규정	삼성생명
강윤석	주식회사 조안	권병규	화인산업	김규혁	포워즈시스템
강은주	한국일보	권병균	행복을 심는 치과	김기섭	덕수복지재단 미소마을
강의원	일신건설엔지니어링	권상현	흥천사	김기완	
강일규	대서산업(대서환경)	권석원	동진건설	김기철	
강일만	세신엔지니어링	권성숙	결혼정보회사 바로연 대구지사	김기현	(주)기남금속
강정숙	동재건설	권승진	인터볼고CC	김길복	대가대 미래포럼 리더스 클럽
강정영	뉴스웨이 대구경북	권시원	중산도시개발	김길생	동화주택
강종구	현대코퍼레이션(주)	권 업	테크노파크	김남호	더원창호
강준기	포머스	권연숙		김니나	세영회계법인
강철원	예일	권영갑	EMS	김대경	
강태중	한도엔지니어링	권오길	한성건설주식회사	김대엽	(주)대영일루션
강해구	경민테크	권오복	(주)진명엘앤씨	김대진	
강환수	(주)덕산코트랜	권오상	변호사	김덕선	우진비철
건축사협회		권오상	(주)대광솔라	김덕영	성서연합외과의원
고경아		권오순	(주)디에스시스템	김도현	(주)한국신재생에너지
고경집		권오춘	아름다운건설	김동국	DK 글로벌 코리아
고민환	상산건설	권유미	서양화가	김동규	범서
고백희	디자인 갑	권일경	(주)위드	김동섭	대구가톨릭대학교
고삼규	보광병원	권장대	세화정공	김동연	우성디앤에이
공영우	동성건재판매	권재원	아우노	김동용	
공윤옥	선진회계법인	권재행	한국다문화재단	김동우	World First
공인옥	백향에스엔피	권정미	S라인 포톤 테라피	김동읍	
공제영	(주)신성건설	권주택	(주)갑산전기	김동재	골마켓
곽기철	지우 씨앤디	권준호	권준호 법률사무소	김동조	
곽덕섭	(주)태명개발	권혁기	(주)산동개발	김만휘	(주)에스엠 종합주류
곽동호	곽치과병원	권혁준	요셉 성형외과	김말분	
곽신혁	Eco Farm	권호겸	(주)풍림	김명수	대남건설
곽재환	중산도시개발	금윤식	골든브릿지	김명용	명성
곽재훈	운경재단	김갑태	동화주택건설	김명웅	DGB생명 AM사업부
곽종준	메리츠화재(KMI에셋)	김강수	푸르덴셜	김명일	명일이앤씨

성명	회사명
김명준	올플디앤씨
김명진	한신타스가스
김무길	삼성전자 무비스 B2B
김목진	대구서부지청
김미경	
김미숙	주원
김민석	서한
김민선	
김민태	제이와이 건설
김범대	미플러스의원
김범현	한라이앤씨
김병렬	오성고속관광
김병오	필즈학원
김병찬	건축사무소한동
김봉찬	리치하우스
김상길	미래세한 감정평가 법인 대구지사
김상덕	부경TS
김상도	
김상섭	티브로드 대구방송
김상섭	대구신문
김상수	청운신탁
김상수	히아브하나
김상완	한백종합기술공사
김상우	세무법인 대한
김상원	부호케어원
김상호	내일건설
김상훈	모던테크
김 석	삼덕아스콘
김석호	한도식품
김선일	상일종합관리
김성관	이슬나라
김성덕	소프탑코리아
김성렬	대성건설
김성률	
김성욱	유도리
김성준	지앤비 모터스
김성호	오상인터내셔널
김성호	성산종합건설
김세종	천궁산업개발
김세중	비즈니스컨설턴트

성명	회사명
김송조	웰다잉토탈장례서비스
김송호	티브로드
김수범	성산종합건설
김수현	한국청년회 대구지회
김수현	대성건설
김숙현	세원 공인중개사
김순덕	(주)신영도시개발
김순조	삼성생명COT
김승근	대구일보
김승우	KS상사
김승찬	대구경북디자인센터
김승필	삼성프린팅솔루션
김시보	백두산업
김시승	다원
김안순	화이트골드
김애경	
김양숙	교보생명
김연창	
김영규	김영사종합상사
김영만	홀인원 로스트볼
김영숙	대구보건대학교 대외협력실
김영식	영진전공
김영식	굿락코리아
김영업	지디종합건설
김영주	주식회사 경북합판
김영준	
김영철	에스에스엘엠
김영택	일월건설
김영화	
김영희	구병원
김오동	명신종합건설(주)
김완준	(주)제이아이디
김외경	아미코젠
김용규	창녕참우축산
김용범	에스알
김용봉	와이쓰리
김용식	청맥산업
김용운	태하시스템
김용찬	(주)보광건설
김우일	김샘학원

성명	회사명
김원은	우경정보기술(주)
김원희	동경Tour
김유석	늘봄심리치료연구소
김윤곤	부성주식회사
김윤찬	CREDIT AGRICOLE investment Bank
김익수	(주)화산종합건축개발
김인수	대호화학산업
김인식	
김일권	삼성생명
김재식	(주)디아이컴
김재엽	하우스탑디앤씨
김재우	삼일기업
김재우	대양정밀
김재울	(주)영림INT
김재필	주안
김재필	산록도시락
김재혁	잉글리쉬 유나이티드
김재현	삼성화재
김재홍	대호약품
김정달	현대동구서비스
김정미	멀티에드
김정수	경북대병원
김정수	김정수경영회계사무소
김정철	경북대 모발이식센터
김정희	김정희 건강피부관리실
김종구	로즈마리 여성산부인과
김종선	세광종합상사
김종원	금아의수족 보조기연구소
김종철	신흥버스
김종호	우인바스텍
김종호	케이원
김종환	메디피아앤씨
김종훈	영남대학교의료원
김종희	김종희 플로라
김주성	광개토병원
김주현	(주)신안피피
김주형	웨딩쿨
김주환	경안플랜트, 경안솔라
김준현	세무법인 대명
김준현	가람건축사사무소

성명	회사명
김준홍	대양포장
김중곤	인슈미디어그룹
김지건	
김지관	(주)그린하니컴
김지미	(주)시마
김진기	영문산업건설
김진수	앤에이 골프
김진수	(주)천우
김진엽	송산엘앤씨
김진일	무창산업
김진태	팔공인터내셔널
김창식	경북합판
김창욱	새삼종합건설
김창호	
김창희	
김춘희	
김치호	도영건설
김태균	(주)에디커뮤니케이션즈
김태길	피앤에이
김태수	대구자동차정비조합
김태순	팔공온천 호텔
김태형	피앤에이
김태호	공간포유
김태훈	태경건설
김판권	명산
김한수	마이스산업연구원
김해용	인덕염공
김현만	서원종합건설
김현수	대호기업
김현숙	한국의학연구소
김현철	에인에이(주)
김형동	대구시
김형식	(주)동인전력
김호용	(주)건강누리
김호준	준 애니팜
김홍근	건축사사무소 ADF
김홍대	한샘인테리어 전자관점
김홍석	디지털 신세기
김홍식	대경대학교
김홍철	

성명	회사명
김환식	(주)한중 엔시에스
김휘중	
김희곤	연세재활요양병원
김희찬	PEGDYCCO
나경성	엘리바덴 온천
나경윤	남부스타코
나상수	
나재승	모나코스토리
남경원	(주)경원덴탈
남규동	디에이치지(주)
남병환	
남재현	러버원
남호영	(주)청운이앤지
노규영	(주)명일폼
노병수	영남일보
노승희	SGI구미지점 미주대리점
노영균	안강삼성의원
노정섭	
노주호	대성아이디
노현영	코리아와이드경북
노혜영	
농협두류은행	
농협생명보험 대구지역총국	
농협손해보험 대구지역총국	
대한전문건설협회	
도건우	전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
도상현	
도원호	해성정공
도윤수	파사디골프
두준옥	
라병희	
류광열	원재산업
류시장	
류영애	세무사
류형우	대구예총
류효충	신라산부인과
류 훈	중앙세라믹스
모미영	
문길남	신세계건설
문문문	디에스팩

성명	회사명
문성균	홈센타홀딩스
문수영	(주)애플애드벤처
문순홍	찰스크라운코리아
문영일	태흥
문재혁	동아티오엘
문중혁	(주)동화건설
문준기	대경맥주
문현훈	덕영치과 기공소
민재철	뛰는 아이들
민춘홍	한국PIPE
박건철	
박경국	성우 아이디
박경식	이원의료재단
박경우	현창건설
박경진	헤나 씨앤디
박경환	변호사 박경환 법률사무소
박관식	명진BS치과
박근백	(주)엠엑스
박금화	서라벌대학
박기양	
박기원	아트건설
박기자	무영
박길상	남북의료기(DHC TOP)
박대진	이비팜
박동규	한국디자인 모형(주)
박동술	성동제통의원
박동천	박국투어
박두천	경북대학교병원
박두한	경북비닐마트
박래석	(자)삼우전자통신
박명규	(주)우진설비
박미경	삼성요양센터
박민천	(주)다운PLUS
박병욱	달인의 찜닭
박병준	에이씨보광
박석현	티비씨
박성묵	대광문화인쇄
박성수	신화헬스앤드의료기
박성욱	(주)삼승BNC
박성진	꿈그린

성명	회사명
박성호	금강운수(주)
박성훈	피닉스건설
박성희	AK메디
박세정	링크샵 커뮤니케이션
박소민	한국자유총연맹 여성협의회
박순하	(주)코너스톤 자산운용
박승국	이시아요양병원
박승현	
박승환	(주)처갓집 통닭
박신영	하나투어
박신제	PSJ창업네트웍스
박언희	박언희종합내과
박영석	대구문화재단
박영준	삼성프린팅솔루션
박우용	대산라이팅
박우호	세영회계법인
박원득	한봉금속
박원진	가인건설
박윤경	케이케이(주)
박윤하	(주)우경정보기술
박은이	슈만
박익진	엔젤클럽 홍보작가
박인호	삼영이앤티
박재관	
박재범	
박재영	(주)헬시안디앤씨
박재현	신우씨엠디
박점희	플라워아트한국화원협회
박정기	일신종합건설
박정민	칸여행사
박정배	우방
박정희	
박중철	우일건설
박중호	삼정 종합 폐차장
박중홍	금호개발
박중화	세보종합건설
박주현	대구과학대학교
박 준	계림물산(주)
박준규	이노커뮤니케이션즈
박준섭	박준섭 법률사무소

성명	회사명
박중희	TS스틸
박지훈	고령축산물공판장
박 진	진보상사
박진숙	동일가구
박진우	효성종합 건설
박진향	어번라이팅
박진환	유에이디
박찬력	경북봉투사
박찬원	문경시축구협회
박찬직	미성회계법인
박찬학	대구시
박창오	신화헬스앤드의료기
박창훈	선경산업
박철형	한빛에너지
박춘선	네네치킨 대구경북서부지사
박춘영	인터불고CC
박태민	뮤직라운드지 펜트하우스
박태범	삼성생명보험
박태영	케이아이티
박태정	주원조경
박특환	박특환세무회계사무소
박한상	갑을상사그룹(주)
박한석	팔공 컨트리 클럽
박해동	강북요양병원
박해연	유진재지
박현경	
박현옥	대구가톨릭대학교
박현주	장아푸드
박혜영	
박혜은	
박홍철	(주)신흥메탈
박흥식	NS디자인
박희경	도미니크
박희진	은성복어
반정옥	미르건설
방용정	(주)로그
방우정	리더스
방천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북구협의회
배극중	씨앤비건설
배명수	근영토건

성명	회사명
배문구	승창침장
배상원	상원종합식품, 오대양식품
배석우	에스와이하우징 대구경북총판
배성혁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배성훈	(주)성훈건축
배영호	(주)영신에프앤에스
배우균	카이도 코리아
배인규	한남라이팅
배인호	성호건설
배장수	진명전력주식회사
배종길	IPM 코퍼레이션
배종찬	기성광고
배주락	(주)해성오피스탑
배창희	인덕텍스타일
배태관	백산자카드
배혜민	(주)팔도에프씨, 토끼밀
배효삼	달구벌석건
백건호	경동BK
백경애	덕영치과기공소
백덕열	지오 종합건설
백무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백복현	
백순정	내추럴플러스
백승한	홍림
백영기	아름다운 사람들
백용환	미래테크
백운규	우림종합엔지니어링
백운일	백광테크
백을수	국제경호센터
백해자	동인간호학원
백현석	더블유병원
변창훈	대구한의대학교
변향숙	돈모닝 식당
변화곤	삼화건설(주)
서기수	즐거운세상
서기승	동대구농협경제
서명수	가람컬리션(주)
서상인	
서상협	
서상화	현대개발

성명	회사명
서성도	독일SEO 싸오
서숙영	
서영규	이노치과
서영득	색동가방
서용교	
서정우	신성기업
서정욱	광고회사 MSC
서정원	대선
서정원	효성그라비아
서종균	대경전력
서종환	(주)제일종합배관
서준덕	신세계영상의학과의원
서중호	아진산업
서찬곤	이하얀바다
서찬교	대원전기
서철현	대구대학교
서태일	(주)에스티아이
서태현	산동개발
서형석	투썸플레이스
석경환	
석한수	(주)유에이건축사사무소
선명한	(주)썬이피에스
성경환	성경건설
성기원	(주)유창알앤씨
성달표	현대통상
성무용	
성병철	디자인JSP
성부영	정일건설
성석훈	대덕건설
성수환	신영남산업 주식회사
성순화	피플라이프
성정용	신도시건설
소정호	미래테크
손대권	대구은행 시지지점
손동태	미래테크
손동현	동현케이블
손민호	동서가스
손병갑	로타리3700지구
손상명	신아개발
손상주	

성명	회사명
손성태	성진포머
손수완	수경
손영훈	성도팩
손원배	태명약업사 태명헬스케어
손인탁	
손인택	서한
손주달	(주)유원티이씨
손주옥	한국재무설계
손중배	유레카
손지영	삼성디지털프라자 수성점
손형문	대진렌탈
송국영	태왕
송남희	본죽 시지점
송대선	
송미향	현대미주여행사
송석훈	우리연합의원
송원배	대영씨앤디
송정아	태양인 이제마 한의원
송정우	
송준호	한국PIM
송진오	아이에스메이드
송채은	
송춘희	아이투어
송해선	하나은행
송호정	(재)씨젠의료재단
신경우	부창솔라
신규창	신규창내과의원
신기영	ARSTOMA
신선영	대구 미래대학
신성철	(주)동원섬유산업
신성필	세양
신연화	벨런스워킹
신영필	주노캐피탈
신용범	한미산업
신재열	안다미로
신재천	대구영화인협회
신정원	(주)한국센서 IT여성기업인회
신철균	다모 건축사
신철수	에나인더스트리
신현창	욱일디앤씨

성명	회사명
신호철	플러스메드
신화섭	여행박사
신희득	(주)용성건설중기
신희영	보람회계법인
심건희	천지재건
심상형	
심왕국	대운포장
심인철	동명테크윈
안상영	(주)광진종합건설
안성용	앤디스코나
안용모	경일대학교
안유학	와이디자인랩
안종수	태권도협회회장
안준태	예진건설
안태현	태현전력
안홍윤	YH바이오사이언스
양대석	악령시 사람들
양승섭	대경
양승혁	인문사
양종호	현대자동차
엄경록	대철
엄관식	엄관식 수학교습소
엄복태	스타커뮤니케이션즈
엄용선	동네방네소식
엄재국	포맨
엄태건	(주)태준메디칼
여승훈	상록수재단
여준혁	여성메디파크 병원
여태용	세계주류
예영숙	삼성생명
예춘호	요셉성형외과
오기우	엘리건스
오무선	OMS뷰티살롱
오순덕	
오재완	한국 키네티코 엔지니어링
오정식	(주)다운산업
오진섭	오진섭세무사사무실
오택근	더좋은병원
우경호	제일약품
우덕구	(주)진성물류

성명	회사명
이상현	더블유병원
우성진	(주)메가젠임플란트
우승민	스포츠와
우승수	
우영제	한영
우외태	유하 비엔피
우종곤	영인이앤씨
원동국	디케이아이러브동대문
유다건	경대 일어일문학과
유명상	대구한국일보
유병완	
유효정	
윤경일	(주)글로벌에스피
윤귀자	삼성생명
윤남수	아성전기
윤민환	씨엠케이푸드
윤영만	
윤영수	우정건축자재
윤용득	교통시스템 연구소
윤종현	수성문화원
윤주석	주순개발주식회사
윤창섭	골든비
윤철식	(주)주성종합건설
윤태경	바로본병원
윤형돈	미래에셋대우
은영기	한솔개발
의사회축구단	
이갑열	(주)상일종합관리-SL산업개발
이강태	한국교통정보
이강하	산록로타리
이경곤	유성기초
이경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이경호	한길산업
이경호	동대구신세계약국
이경훈	웨미리회원권 거래소
이관형	대원상사
이광해	아사다라
이기식	현대스텐
이기화	행복을 심는 치과
이기환	거한건설 주식회사

성명	회사명
이대영	
이대우	기운산업
이대형	세계실업
이덕록	(주)서보
이도윤	(주)세광하이테크
이도희	대한주택건설협회
이돈관	(주)우수
이동경	도원투자개발
이동관	매일신문
이동균	군월드
이동명	자비스
이동섭	영남장애인신문사
이동성	홍맥 건축디자인
이동열	참좋은요양병원
이동원	변호사 이동원 법률사무소
이동원	현대자동차 앞산지점
이동현	우행주 건축
이동환	(주)폴도래
이동희	광덕전력
이두원	(주)DRK
이명옥	(주)이원
이명현	동광명품도어
이무철	금융기계
이문열	대신공영
이민화	백강
이민희	키친씨
이 배	
이병락	경북대학교병원 시설과
이병우	HOTEL여기어때 대구역점
이병준	(주)남양산업개발
이복환	군민신문
이복희	광덕전력
이상길	대구광역시
이상섭	조아전자(주)
이상열	씨유킴퍼니
이상탁	반도광학(반도옵티컬)
이상택	매일신문사
이상혁	(주)비토코리아
이상효	
이상훈	(주)화성이앤씨

성명	회사명
이석우	삼진씨앤씨
이선찬	진성테크
이성구	마리아난임클리닉
이성구	대구의사회
이성도	주식회사 부광
이성동	금보건설
이성배	예가
이성엽	SL
이성욱	(주)부국철강
이성태	주식회사 풋살스포츠
이성하	BL성형외과
이소윤	
이숙형	여행의향기
이승민	리알홀딩스
이승민	밸류마크 한경금융
이승진	나우산업개발
이승현	동서개발
이시연	DESIGN GRROUP KHAN
이암우	옛밥사랑협동조합
이양구	(주)에코텍
이영우	대광엔지니어링
이영웅	(주)디자인로움
이영준	선경건축자재센터
이영호	
이완철	(주)경상관광여행사
이용재	석문전기
이원영	평산개발
이원우	한은이앤씨
이원재	주식회사 핑거스냅
이원찬	아진산업
이윤성	대구동부순환도로
이윤희	그린사이언스
이윤희	미래테크
이윤희	한국알카리수 수성구 대리점
이은수	
이은준	SJ홀딩스
이은호	대영건축사사무소
이응상	(주)한승계기
이응찬	(주)건화
이인경	서울원복

성명	회사명
이인선	대구경제자유구역청
이인현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구경북지회
이재남	DGB생명
이재덕	금성가구
이재덕	한국인의 밥상
이재익	가람테크
이재태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 진흥재단
이재표	제이에프
이재혁	녹색연합
이재형	대구발전동우회 삼익HDS
이재호	한경회계법인
이재호	(주)한미인더스
이재훈	푸드원
이정미	아사무역
이정주	
이정현	현대자동차 대구중앙지점
이정훈	TPC
이정훈	(주)부성세라믹스
이종경	도원
이종만	미전커텐
이종복	삼해인더스트리
이종운	덕재건설
이종원	KOG
이종현	퓨리치
이주현	엘플러스
이주형	(주)엘컴
이준근	SSLM주식회사
이준철	태영전기
이준호	호신섬유
이중근	행정동우회
이중락	대구영화협회
이중원	원호금속
이중호	세신정밀
이지연	운경재단
이지완	명진BS치과
이지환	VIP응급환자이송센터
이진백	지앤비 오토모빌
이진복	보람회계법인
이진수	(주)환경에이앤씨
이진호	풍산기연

성명	회사명
이진환	삼원회계법인
이창근	극동1급정비공장
이창영	만촌1동성당
이창환	토담건축사
이창희	이코노식자재마트
이천기	국제자산신탁 대구경북지역본부
이충경	JUWEL J
이치우	대구음악협회
이철모	네네치킨 대구경북서부지사
이태현	법무법인마음
이태훈	애드애플스미스
이필후	대구그린에너지센터(주)
이한일	드림병원
이 현	(주)두강, 코디박
이현수	MG새마을금고
이현득	변호사 사무실 이현득
이형선	지성건설
이형원	일성침장
이형주	지엠 솔루션(주)
이호경	월드산업 주식회사
이호경	대영에코건설
이화선	화선(주)
이희도	아진주철
이희준	SGI 서울보증보험 대동대리점
이희채	이희채건축사사무소
인재현	
임건주	다운비엔에이
임광호	열린치과
임명섭	영남바론상조
임병욱	
임상택	위드고
임상훈	엔티엘 의료재단
임영미	DGB생명
임영태	농협 사월지점
임용규	
임재현	현대목재산업
임재형	원규
임창광	KOG
임홍규	대평산업개발
장극윤	영진수예침장

성명	회사명
장기식	주호산업
장기식	JCI
장기욱	연경반점
장기철	부강철강
장길화	(주)세안정기
장도미	Queens
장동렬	경산산업
장민우	대영금속
장병환	삼보이데아
장선윤	고문당인쇄(주)
장성욱	신창공업사
장성태	대한개발
장세주	한국포장산업
장세철	(주)고려건설
장수미	
장안중	석문전기
장연배	보광테크
장영자	(주)하이리빙
장용호	(주)나라산업
장우영	대구보건대학
장욱진	화랑고무
장원규	화성
장원용	대구시
장윤제	장윤제연합치과의원
장재철	
장재태	
장재화	창녕참우축산
장정숙	자원환경
장정호	장정호 법률사무소
장종욱	아꿈의 집
장철광	(주)유일
장팔술	
장팔환	부동산 개발 컨설팅
장혜정	백산부동산
장홍석	대원기계
전미조	효성복지재단
전병규	일신프라스틱(주)
전성근	SK반야월대리점
전성렬	동양OA
전성봉	오케이포인트마트

성명	회사명
전수근	삼명종합상사
전영호	팔공신헌
전용수	신동아관광
전용철	(주)근우정공
전익상	
전재관	
전재욱	(주)피플데이터
전중달	제이디 건설
전진길(영제)	(주)다원이앤씨
전태제	대구CC
전형노	메가미래라이프
정경용	민초심
정군섭	(주)대영산업
정규익	가구365.COM
정기욱	
정기은	분홍빛병원
정기출	삼성 대구법인지점
정모경	정원자카텍
정민교	대영모던택(대영채비)
정병창	세종건설
정병환	대구시의회
정봉길	가조종합개발주식회사
정성인	GJ에셋
정성훈	(주)헬피니스(자기경영코칭학)
정소영	(주)창성산업
정수현	팔선생
정승진	한국OSG
정신유	(주)에이치디패널
정에스더	갤러리제이원
정연일	한패밀리병원
정연환	삼진이엔피
정영만	제이아그로
정영목	대한피앤씨건설
정영준	(주)다원아이디
정영철	제이스마인드의원
정용화	빠리바닷가제
정용화	(주)대서케미칼
정우필	서한
정원호	삼화봉재
정일균	(주)다운시스템

성명	회사명
정장화	주성안전기
정재간	대구대학교
정재석	주식회사 탐메디케어
정재호	초록들코리아
정정국	지엠이앤씨
정정아	국수꽃이피었습니다
정찬두	세기리텍(주)
정태경	대성건설
정택수	매일애드
정하용	동진특수인쇄
정한채	청운신헌
정현수	보곡이앤씨
정호균	메디피아
정홍표	홍성건설
조규현	건축사사무소
조극래	대구가톨릭대학교
조동희	향우회뉴스
조두석	애드메이저
조득환	(주)금강알텍
조만현	(주)동우씨엠건설
조민규	
조민성	동영염직
조병래	디자인해밀
조봉준	동일
조선웅	유마스텝 메디컬 그룹
조성수	에이엘테크
조승우	이지컴퍼니(주)
조영래	원형디앤씨
조영만	제이에이치
조용호	어펙시스템
조장형	나래피움
조정연	(주)대청디앤씨
조정옥	두손건축
조준근	대구시 학원 총연합회
조준호	태일
조지혜	제이커뮤니케이션
조철래	성지여행
조혁준	스카이 스튜디오스 학원
조현수	한국케이블TV 푸른방송
조혜림	

성명	회사명
주윤수	토정건설
주진현	하늘나리
지용호	대한공조
진경훈	코앤코
진광석	진성축산
진혜윤	보강디엠에스
차성범	(주)삼인프라임
차순봉	선우종합건설
차영규	민영산업
차영진	제일컴
차인석	대성엔팍스
차훈일	샘조롱 농업회사법인
천순화	퀸무역
천용구	가우
천종열	윤성건설
천종태	
천향구	연세클리닉
천해성	하림조경
최경목	수성정비센터
최경수	삼익테크
최고현	MBC
최규락	동양이엘
최길영	대구광역시 교통연수원
최대식	동경주산업개발
최동욱	한라개발
최두원	
최만수	인터불고CC
최명수	오성종합주류
최명환	정건사종합건축사사무소
최미경	법무사 최미경 사무소
최미애	뉴니케
최미연	대구은행
최상대	화진기공사
최상무	오페라하우스 공연예술본부장
최석훈	남산병원
최선주	연호개발
최성문	크레텍 책임
최성욱	책임전력공사
최성종	통문어전문점(통문어가)
최성주	동진금속

성명	회사명
최세욱	우경정보기술
최순미	(주)인터불고 여행사
최승규	한청지도자연합회
최양원	(주)이루케미칼
최연판	KB국민은행
최영철	삼코
최영호	
최영훈	
최오원	이 렌트카
최용석	빠른 감자탕
최용석	
최우각	대성하이텍
최우영	
최원식	건축사사무소 리더
최윤연	
최은미	대구세계합창축제 조직위원회
최은석	
최익진	풍국면
최인규	스마트아울렛
최인철	(주)에이스감정평가법인
최인호	명성티엠에스
최일경	명문텐탈
최일권	(주)현대중공업
최재호	주식회사 골든크라운
최재홍	
최종춘	아인종합건축사사무소
최종태	솔트커뮤니케이션즈
최종택	세무사최종택사무소
최종해	동양종합건설
최주열	화원참사랑요양병원
최주희	
최준필	
최준혁	
최진오	한국디자인모형
최진환	(주)고려이앤씨
최창배	신항도시개발
최철환	광풍 퍼니처
최태원	대구축구협회
최한교	디스이즈모든
최해동	

성명	회사명
최현희	아르데코무이
최효욱	(주)월성주택건설
최흥로	흥아공업사
추승철	
추재엽	대영에코건설
추하엽	대성크린텍
코바제프	
태영경	
표병관	(주)지에스탑
하달용	삼건환경건설
하석배	계명대학교
하승우	하승우 내과
하정식	서보정밀
하제연(웅진)	레인보우스튜디오
하중범	
하충호	플러스컴
하태욱	에스케이앤씨(주)
하태준	영진종합건설(주)
하호만	(주)도원주택개발
한금재	(주)한국테크
한금재	케이프린텍
한도준	삼익키리우
한동근	의료법인해성병원
한동엽	방천시장가족족발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상섭	대구 경성병원
한성교	(주)한빛 알앤디
한승훈	(주)유한상사
한영필	에스피코리아
한중건	바르미 호텔인터불고 대구
한 청	
한화용	금도에너지
함동호	에듀
허성규	우진시스템
허용훈	건화트렐러보그
허원희	HK GOLF
허정수	명진약품
허정호	(주)프리미엄에셀
허진걸	영산전기
허태조	한국산림보호협회중앙회

성명	회사명
허필수	동성중공업
현대백화점 대구점	
현용환	(주)유성철강
현정규	(주)영진기공
홍덕률	
홍민수	WOORAM
홍석준	대구시 미래산업 추진본부
홍석환	소방감리원 기술단
홍영돈	에스아이패널
홍영호	(주)바른로지스
홍장현	뉴영남인테리어
홍진수	세인트나인
홍철자	한국미술협회 서양화가
홍효정	세영회계법인
황세영	매천축산
황 영	푸르맘
황우곤	파인스트리트
황인혁	인성데이터
황재범	오리여인
황재철	
황정철	제주소프링
황정현	성광전기설계사무소
황종길	성신내장건설
황주연	한솔해피니스 대구수성센터
황현호	인터테크주식회사
황현호	변호사황현호법률사무소

Bareumi Hotel Inter-Burgo DAEGU

바르미 호텔인터불고 대구



대구 최초 '5성호텔' 획득



객실예약 053)602-7171~3

이제, 호텔에서 놀자 치맥하며 놀자 ~ !

디럭스 더블룸 or 디럭스 트윈룸

+ 호텔조식(2인) + 사우나2인

더뷔페 옛 인터불고 조식부메 제공

+ 석식2인 (더뷔페 or 심비디움)

더뷔페 (월~금), 심비디움 바닷가재 (주말 / 공휴일)

+ 프리미엄 치맥

밤별소 아진포차, 치킨 & 생맥주 2잔 제공

~~₩664,000~~

₩269,000

특 / 별 / 우 / 대 / 가 (2인기준)

패키지 상품은 당일 취소가 불가 합니다.
10%의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바르미 호텔인터불고 대구

대구 수성구 팔현길 212 (만촌동 300번지) http://www.hotel-interburgo-daegu.com
212, Palhyeon-gil, Suseong-gu, Daegu, Republic of Korea TEL 053. 602. 7114 FAX 053. 953. 2008

HALF TIME TALK / 공지사항



대구FC엔젤클럽은 시민구단 대구FC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과 축구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결성된 뜻있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대구 전용구장시대 2019년에도 엔젤클럽은 다시 한 번 '대구시민의 힘'을 보여줄 것입니다.
시민구단 대구FC의 발전은 우리 대구의 발전과 같습니다.
대구FC를 명문구단으로 만드는 것은 물론, 대구의 희망을 만드는 진정한 '시티즌 오블리주(Citizen Oblige)'의 실천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활동을 기대합니다.

가입문의

대구FC엔젤클럽 사무국

☎ 전화 053-602-7307

📠 팩스 053-602-7306

대구FC엔젤클럽 홈페이지

www.dgfcangel1004.co.kr

대구FC엔젤클럽
회원이 되면
매년 다음과 같은
의무가 생깁니다.

후원금 납부

- 다이아몬드 1,000만 원 이상
- 일반 100만 원 이상 / 자동이체의 경우 월 83,000원
- 엔시오 12만 원 이상 / 월 10,000원 ※ 엔시오는 자동이체를 원칙으로 합니다.
※ 자동이체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동이체가 힘드신 경우 일시납
(계좌번호 : 대구은행 505-10-166391-1) 카드결제가 가능합니다.

엔젤 릴레이

- 릴레이 방식으로 추천

홈경기 직접관람 응원

- 대구FC 홈경기 시 엔젤존 운영(DGB대구은행파크 W1, W2, W3)

각종 엔젤클럽 행사 참여

- 엔젤클럽 회원으로 대구FC 홍보 활동 적극 참여 권유

혜택

- 가입기념품
- 행사 참여
- 홈경기 관람(후원금 액수만큼)

Angel Club 가입신청서

※ 가입번호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명					가입번호		
회사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연락처	상의 사이즈	
주소	※ 우편물 수령 주소						
E-mail					추천인		

후원 금액

- ☐ 월 83,000원 - 자동이체
☐ 1,000,000원 - 카드결제 및 계좌이체
☐ 1,000,000원 이상 - 사무국 문의
 ※후원금은 대구FC계좌로 입금되며, 경비처리 관련 사항은 엔젤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제 방법

- ☐ 계좌 이체 : 계좌번호 : 대구은행 505-10-166391-1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
☐ 카드 결제 : 카드결제시 사무국으로 통보바랍니다.
☐ 자동 이체 : 예금주 : _____ 생년월일 :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은행명 : _____ 계좌번호 : _____

개인정보 활용 동의

작성해주신 정보는 대구FC엔젤클럽 가입 및 혜택 제공 외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습니다.
대구FC엔젤클럽 가입을 위해 신청자 및 추천 대상자 정보를 수집, 활용,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예 ☐ 아니오

엔젤클럽 회원 추천

본인은 엔젤클럽 가입과 함께 엔젤클럽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며, 그 일환으로 주위의 뜻있는 분을 엔젤클럽 회원으로 추천한다.
※ 추천인이 있을 경우 엔젤클럽 사무국(아래 연락처 참조)으로 인적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사항

- 우편 발송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팔현길 212 (만촌동, 호텔 인터볼고 대구) (42064)
- 팩스 송부 : 053-602-7306, 메일주소 daeguangel@naver.com
- ※ 문의 사항은 대구FC엔젤클럽 사무국 ☎ 053-602-7307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2019 대구FC엔젤클럽에 가입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구FC엔젤클럽

신청인

(인)

전
원
선

제13회 대구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DAEGU
INTERNATIONAL
MUSICAL FESTIVAL

2019.6.21.(금)
~7.8.(월)

대구 주요 공연장 및 시내 전역

철보라 강하 미래가 온다

철강의 시대에서 4차산업혁명시대로!
대한민국을 철강대국으로 만든 저력의 도시,
포항이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을 강력하게 만듭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사업개요

위 치 :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이인리 일원
계획시설 : 주거, 상업, 업무, 산업시설
면적 / 사업기간 : 1,478,998㎡ / 2008년~2022년
유치업종 : 바이오 의료, 그린에너지, 부품소재연구, 지식서비스 등

주요 시설(유치예정) 경상북도 한동해지역본부 / 지식산업센터 / 식물백신기업지원센터 / 가숙기 기반 산업 클러스터 / 세포막단백질연구소

※ 본 제작물상의 CG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합니다. ※ 본 홍보물은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대구·경북을 위해

금복재단이 함께 달려합니다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50억 후원
대구·경북 체육 성금 및 독도 후원금 지원
사랑의 쌀 지원 등 복지시설 후원
금복문화상 시상 및 예술인 후원
서문시장 화재 복구 성금 후원
포항·경주 지진 피해 복구 성금 후원
영덕 태풍 피해 복구 성금 후원
따뜻한 동행 캠페인 성금 5억 후원



금복문화재단 금복복지재단 금복장학재단

